

제2060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원희목 협회장 “매출 1兆 국산 신약 나오려면” 18



신민희 거래소 팀장 “투자 유도하는 탄소배출권” 23

코스피(17일) **2107.06** (+0.96P)
코스닥 **686.35** (-7.03P)
환율(달러당 원화) **1122.5** (+2.4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95%** (-0.008%p)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슬로건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 활용 모빌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수소차 ‘넥스’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에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성동조선 새 주인 이르면 오늘 윤곽

두번째 매각 본입찰 3곳 참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이번 성동조선 매각 본입찰에는 3곳이 참여해 인수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8면

한 곳은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통영 기반의 지역기업(컨소시엄 포함), 다른 한 곳은 성동조선에 기자재를 공급해온 중견기업으로 전해졌다. 두 곳 모두 성동조선을 인수할 만한 재무능력이 뒷받침되는 견실한 기업이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무적 투자자로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곳은 최근 조선사 인수에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모펀드로 알려졌다.

회생을 주관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찰금액과 사업계획, 고용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으로 지분 81.25%를 보유한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선매수대상자를 오늘 선정하고 다음 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MOU 체결 뒤에 자금조달안과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얘기가 잘 진행되면 2월 말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매각 입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하반기 1차 매각 입찰 당시에는 경남 통영에 위치한 조선소 전체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선정해 참여하는 곳이 나오지 않았다.

이정필 기자 roman@

2025년 수소차 3000만원대에 산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지난해 2000대 수준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120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6년 뒤인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 양산체계를 갖춰 대당 7000만 원대인 차 가격을 반값인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창환 SK가스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5면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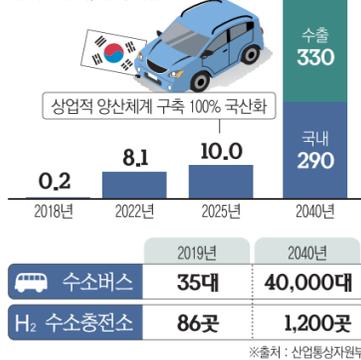
2040년 수소차 620만대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목표

文대통령 “산업구조 혁명적 변화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 기대”

혁명적 변화”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올해 4000대 이상으로 늘리고 2040년엔 620만 대(수출 330만 대)로 확

수소차 보급 계획 (단위: 만 대, 누적 기준)



대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충전소도 2022년 310곳, 2040년엔 1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열쇠인 수소 생산과 관련해 그린수소(수전해수소·해외 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연간 13만 톤에서 2040년엔 연간 526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소 대량 생산을 통해 수소 가격을 2040년까지 3000원/kg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경영·금융 지원해 스타 벤처로 키운다더니...”

스타트업 들러리 세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믿었는데, 결국 실적 쌓기에 이용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든지. 아까운 6개월의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적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기보벤처캠프’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제3기 기보벤처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같은 해 연말 사업 수료식까지 반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고 토로했다.

그와 함께 기보벤처캠프에 참여한 업체는 60여 곳. 이들 업체 중 단 1~2곳만 기보의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벤처캠프 3기 60곳 중 1~2곳 혜택 신청~수료식 반년간 시간만 허비 기보 “업체불만 파악 전담팀 검토”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보벤처캠프 3기’를 모집했다. 기보벤처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과 협업해 기술창업 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3기 모집 당시 기보는 참여 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금융서비스(투자, 보증 등)와 비금융서비스(벤처인증, 멘토링, R&D지원 등)를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성공 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참가 업체 대다수는 최초 사업 신청 및 기보 측과 상담했을 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금융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업체 대다수는 기보벤처캠프 수료식인 ‘데모데이 행사’ 이후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참가 업체들은 기수 단체 모임을 통해 60여 개 기업 중 고작 1~2곳만 금융·비금융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기보 측에 집단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부 업체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보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1~2기 벤처캠프에서는 70여 업체 중 50% 가까운 업체가 금융·비금융 혜택을 받았다”며 “3기의 경우 업체 반발을 감안해 경영지원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실패 용납하는’ SK하이닉스 올해 사내벤처 6개 만든다

‘하이게라지’ 출범...총 12억 지원

SK하이닉스가 올해 6개의 사내 벤처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기간 내 사업화에 실패해도 재입사를 보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17일 경기 이전 본사에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하이게라지(HiGarage) 출범식을 열어 테스트 공정용 칠러(Chiller) 장비 국산화 등 총 6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하이게라지’는 사내 아이디어에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차고(garage)에서 창업한 것에서 착안했다. 지난해 8월 공모를 시작한 하이게라지에는 약 24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SK하이닉스는 이들 중 사업 실현 가능

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고려해 6건의 아이디어를 사내벤처로 육성하기로 했다. 총 12억 원의 자금을 사업화 과정에 지원한다.

‘테스트 공정용 칠러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를 제안한 SK하이닉스 김형규 기장은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칠러는 현재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 장비업체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국산화에 성공해 협력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하이게라지는 SK하이닉스가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사업화를 성공시켜 그간의 노력들을 결실로 보여 달라”고 격려했다. 송영록 기자 syr@

〈순자산 100만~3000만 달러 부자〉

지난해 슈퍼리치 2240만명... 美 1위·한국 8위

웰스X '글로벌 HNW 분석'

세계의 슈퍼리치(초고액자산가)들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약 6%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위스 소재 글로벌 부유층 자산관리 컨설팅 업체 웰스X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HNW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HNW(High Net Worth)는 순자산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서 3000만 달러에 이르는 부자들을 말한다. 웰스X는 이들 HNW의 수가 향후 5년간 총 770만 명 늘어나 2023년에는 30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평균 6.1%에 달하는 속도로, 이들의 자산은 매년 약 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HNW 수는 2240만 명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들의 자산은 총 61조3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웰스X의 마윈 사반 선임 애널리스트는

전년보다 2% ↑ ... 매년 6% 늘듯
총자산도 2% 증가한 61조 달러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美 뉴욕'

"G2 갈등·경제 불확실성 등
'부의 증가' 글로벌 악재에 주춤"

"지난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글로벌 부(富)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부자들의 수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보다 느린 속도로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빈센트 화이트 웰스X 대표는 "올해는 부자들의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수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아시아는 지난해 HNW가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자산도 0.3% 늘어난 15조5000

글로벌 '개인 고액자산가(HNW)' 분석

정의 100만~3000만 달러 부자

2018년 { HNW 수 : 2240만 명(전년비 1.9% 증가)
총자산 : 61.3조 달러(1.8% 증가)

아시아 { HNW 수 : 0.6% 증가
총자산 : 15.5조 달러(0.3% 증가)

북미 { HNW 수 : 900만 명(2.1% 증가)
총자산 : 24.3조 달러(전체의 41%)

HNW가 많은 상위 10개국
(전체 HNW의 75.2%)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미국	6	프랑스
2	중국	7	캐나다
3	일본	8	한국
4	독일	9	호주
5	영국	10	이탈리아

HNW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 도시
(단위: 명)

뉴욕	97만8810
도쿄	59만3025
LA	57만6255
홍콩	39만1595
런던	37만2270

억 달러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북미의 HNW 수는 2.1% 늘어난 900만 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자산은 24조3000억 달러로 글로벌 전체의 41% 비중이었다.

HNW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

국, 호주, 이탈리아 순이었다. 이들 10개국은 전체 HNW의 75.2%를 차지했다.

HNW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97만 8810명의 뉴욕이었다. 2위인 도쿄(59만 3025명)보다 약 2배 많다. 3위는 57만 6255명의 로스앤젤레스(LA)가 차지했

다. 2017년 1위였던 홍콩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HNW 수가 전년보다 11% 줄어든 39만1595명으로 4위에 그쳤다. 이외에 런던, 시카고, 파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댈러스가 나란히 5~10위에 들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김조원 사장 "국가 항공우주산업, 年 20조 규모로 확대"

KAI, 미래 발전 전략 발표

김조원(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사장이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간 20조 원 규모로 키우고 강소기업 1000여 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주관 기자 간담회에서 민수사업과 미래형 무인이동체 등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AI는 창사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생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경영시스템의 고도화 △미래

올해 생존·지속가능 성장 원년
정부·지자체 등 상생협력 발판
국내 종사 업체 1000여개 확대

성장동력 확대 △지속적인 핵심 역량 강화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과 내실경영의 토대를 만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 사장은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이 절실하다"며 "KAI는 지속적으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산



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거래 업체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초 220여 개에 불과했던 KAI의 국내 거래 업체는 현재 330여 개로 늘었다. 이런 노력으로 2018년이 그동안 가내 수공업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항공우주 산업에 '봄'을 일으키는 초년이었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이러한 기조가 지속돼서 항공 우주업 종사 업체가 1000여 개

로 늘었으면 한다"며 "이제 항공산업 발전의 기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KAI는 미래 성장을 위해 우선 전략 수주 품목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수 기체 구조물 분야에서 슈퍼 티어(Super Tier) 1에 진입하는 한편, 민항기 시장 성장에 맞춰 한국 브랜드의 민수 완제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우주산업 업계에서 군수 시장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반면 민수 시장은 전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 활성화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분석이 나온다. KAI의 경우 매출에서 군수 비중은 40%, 완제기 수출과 민수 기체 구조

물 비중은 60%다.

한편, KAI는 향후 고객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항공기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 방침이다. KAI는 지난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항공우주 분야의 신규 협력업체 110개를 발굴하고 강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동시에 한반도와 아시아를 겨냥해 한국 브랜드의 100석급 이하 중형기 개발에도 나선다.

KAI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무인기를 다양화하고, 개인용 무인이동체(PAV) 개발을 통해 미래형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KAI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 시스템 재정립, 수리온 양산 재개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며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선행적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www.heritage.co.kr



HERITAGE

마음과 마음이 있다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1 구두, 캐주얼화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NCSI 남성정장구두 부문
고객만족도 1위

MDT7007CR4S

2022년엔 수소 3만 원어치면 서울-부산 간다

수소차 대중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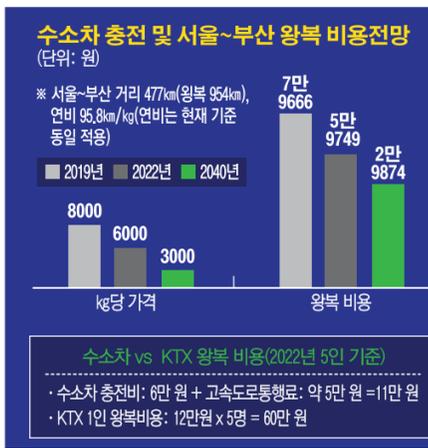
3년 뒤 kg당 충전비 '반값'으로 충전소도 14곳→310곳 늘어나 "42만명 고용·43兆 시장창출 목표"

3년 뒤인 2022년 수소 충전비 3만 원이면 수소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서울-부산 KTX 비용이 5만98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5명이 수소차 한 대로 부산에 가면 KTX 비용 29만9000원보다 약 27만 원 저렴한 셈이다. 왕복 시 54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약 5만 원을 빼도 50만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kg당 수소충전 비용은 6000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휘발유 km당 연비 116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62.5원으로 수소차의 연료비 경쟁력이 더 커진다.

현재도 연료비 경쟁력은 수소차가 내연차보다 높다. km당 연비는 수소차 83원, 휘발유차가 116원이다. 전기차(49원)엔 뒤지지만 충전시간에선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앞선다.

현재 kg당 8000원인 수소충전 비용은 3년 뒤 6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3만 원어치의 수소를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477km) 갈 수 있고 6만 원이면 왕복이 가능하다. 2040년엔 수소 충전비



에너지원별 차종 비교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동력원	수소	전기	내연기관
연료	수소연료	(외부충전) 전기	화석연료
구동과정	수소연료 → 연료전지스택(발전) → 배터리 충전 → 모터 구동	(외부충전) 전기 → 배터리 충전 → 모터 구동	화석연료 → 내연기관(엔진) 구동
배기가스	미배출	미배출	CO, NOx, SOx 등
연비	95.8km/kg	6.4km/kWh	12km/L
연료판매가격	8000원/kg	313원/kWh(할인 제외)	1395원/L(가솔린)
1km당 연료비	83원/km	49원/km(고속)	116원/km
내구성	16만km	20만~25만km	20만~25만km
특징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 배급 등 촉매 사용, 가격 경쟁력 낮음, 관련 인프라 부족	외부 전기 공급, 배터리 효율이 낮고 비용, 가격 경쟁력 낮음, 관련 인프라 부족	짧은 주유시간과 긴 주행거리, 가격 경쟁력 높음, 관련 인프라 충분, 배기가스 배출로 환경파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슬로건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3000원으로 떨어져 3만 원으로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 있고, 연료비도 전기차와 겨루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차 구매가격도 2025년엔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00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수소차 연간 생산량을 3만5000대로 늘리면 가격은 5000만 원 수준이고, 202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내연차 수준인 3000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찾아보기 힘든 수소차를 2022년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수소차는 승용차 1800대, 버스 2대에 불과하지만 2022년엔 승용차 7만9000대, 버스 2000대 등 총 8만1000대로 늘어난다. 특히 2040년엔 다양한 차종의 수소차가 도

로를 달릴 전망이다. 승용차 590만 대, 버스 6만 대, 택시 12만 대, 트럭 12만 대 등 총 620만 대의 수소차가 전국을 누빌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운영을 위한 충전소도 확대한다. 현재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곳, 2040년엔 1200곳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부가 수소차 등 수소경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다. 수소경제는 차량을 중심으로 한 수송 분야와 전기, 열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협력 부품업체는 물론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에너지 자립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2040년 43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42만 명의 고용 창출, 온실가스 2700만여 톤 감축, 총 에너지 중 수소 비중 5% 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국가	브랜드명	전기차	수소전기차
일본	도요타	X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클래리티
유럽	르노닛산	리프	X
	폭스바겐	e-골프	X
	벤츠	EQ	X
	BMW	i3	X
미국	GM	볼트	X
	포드	포커스EV	X
한국	현대차	아이오닉	넥쏘

미래차 핸들 쥔 현대차 '글로벌 퀀텀점프' 시동

경쟁사 전기차 매달릴때 수소차 올인 정부 정책 힘입어 주도권 선점 나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와 정책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들이 전기차에 몰두한 사이, 한발 앞서 수소 기술에 먼저 뛰어든 것만 큼 글로벌 주도권 선점에 더 다가서게 됐다. 올 1월 현재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중인 곳은 일본 도요타와 혼다, 한국의 현대차 등 3곳이 전부다. 미국과 유럽 메이커에도 관련 기술이 없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정도가 양산 수소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주요 메이커들은 여전히 전기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현대차의 전략과 관련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현대차의 미래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1등 메이커인 일본 도요타는 전기차를 건너뛰고 수소전기차로 직행한 상태. 전기차 시대의 조기 폐막을 예측한 도요타는 궁극점을 수소전기차로 특정한 지 오래다.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그룹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수소전기차의 필요성을 깨닫고 고급차 브랜드 아우디를 앞세워 대안을 찾

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차와 손잡았다. 현대차와 아우디가 맺은 수소차 동맹이 그것이다. 글로벌 1, 2위 메이커 모두 수소전기차를 준비 중인 셈이다. 현대차의 전략이 옳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까지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판매 전략은 2020년 1만 대, 2022년까지 1만5000대였다. 그러나 17일 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시장을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전기차 8만 대 시장 공인은 단순히 1대당 얼마의 이윤을 남기느냐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수시장에서 수소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핵심 부품의 가격 인하 △대량 양산체제 구축 △양산 기술력 확보 등이 시너지로 따라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작년 12월 열린 모비스 충주 제2공장 신축 기공식에서 "수소차처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과 현대차그룹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GTX B’ 예타 면제 제외된 듯... 지방도 1곳씩만 선정

정부, 이르면 내주 발표... “3기 신도시 맞물린 B노선 추진 속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권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예타가 면제되는 SOC사업을 확정한다. 흉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확정된 사업을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 국가균형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2개 사업의 예

타 면제를 신청했는데 1개 사업만 허용하고 사업비도 신청한 액수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로 1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신청한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TX-B노선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으로 추진

하고 있어 예타 면제와는 별개로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고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경제성 평가로 1999년 도입됐다. 조사 결과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십조 원이 드는 사업을 모두 예타 면제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등 돌린’ 한중.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인 한국 측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서울 외교부에서 회동, 악수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文 대통령 “요즘 내가 현대차 홍보모델”

“他 지역도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17일 새해 첫 지역 경제투어로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한 뒤 정희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등 대기업 임원,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1인당 총생산이 늘 1위였던 울산이 어서 그 체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며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수소경제 지원 등 여러 활력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 수석부회장과 함께 울산시청 2층 대회의장 복도에 마련된 수

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 부스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행보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일정을 잡았던 지역 경제투어도 이달엔 두 번 정도 가질 예정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민정수석실 감찰, 고위공직자·공기업 임원에 한정

민간인 사찰 가능성 차단

특감반 설 연휴 전 활동 재개

청와대가 17일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활동이 중단된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의 내부 규정 재정비와 조직 쇄신을 마치고 설 연휴 이전에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감찰반 활동을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의 중대한 범죄나 비리에 한정해 민간인 사찰 우려 가능성을 차단한

게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며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감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공직감찰반’에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 상호 견제토록 했다.

조 수석은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최대 1000만원 2개월 내 지급

7월부터 임금을 떼인 퇴직자들이 받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지급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한

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7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진드 놀래!
진드 놀아~
얼마나 놀았을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www.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친환경차 보급 6000억 썼지만 고작 0.5%P 증가

**작년 친환경차 비중 1.5%→2%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더 늘어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 문제”**

지난해 친환경차 보급에 6000억원가량이 투입됐지만 신규 친환경차 대수를 0.5%포인트(P)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 친환경차는 총 46만1733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로 0.5%포인트 늘어났다. 하이브리드는 9만1228대, 전기차 3만648대, 수소차 723대가 늘었다. 예산 6000억 원을 투입해 고작 12만 2599대, 0.5%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친환경차 보급에 썼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는 경유차 비중은 더 늘었다. 경유차 비중은 42.80%로 전년(42.5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부분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련은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과 휘발유차량을 대체하는지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역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류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과 비교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를 포

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든 9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첫날인 1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된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음 달 28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승현 기자 story@

작년 소재·부품 수출액 3000억 달러 첫 돌파

반도체 특수·고유가에 호조

반도체 경기 호황과 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전년(2828억 달러)보다 11.8% 늘었다. 소재·부품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액은 1386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19.6% 증가했다.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떨어졌음에도 데이터센터·IT 기기 등의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난 것이다. 플라스틱, 화학섬유 등 화학제품 수출액도 494억 달러로 1년 새 11.3%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간 데다 국내 기업이 생산 물량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서다. 이달 상순(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2%나 줄었다. 수출 단가 하락 탓이다. 화학제품 역시 수출 단가를 정하는 기준인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산모 4명 중 3명,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이용 비용 220만원
산후조리 만족도는 '친정' 1위
조리기간 중 절반 우울증 겪어**

산모 4명 중 3명은 출산 후 6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220만 7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0에 근거해 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안전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진행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 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에서 출산 후 6주간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7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본인 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이상 중복응답)이었다. 장

소별 이용 기간(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은 본인 집이 22.6일, 친가는 22.3일, 시가는 20.3일이었다. 산후조리원은 13.2일로 이용률에 비해 이용 기간이 짧았다.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4.6주(32.2일)로 조사됐다. 단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기간은 평균 8.3주(58.1일)로, 실제와 희망 산후조리 기간간 차이가 컸다. 장소별 만족도(5점 만점)는 친가가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원(4.0점), 본인 집(3.8점), 시가(3.7점)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과반(51.1%)은 산후조리원과 관련,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경비 지원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220만7000원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평균 지출비용인 95만8000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산후조리 기간 중 산모의 50.3%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출산 9~20개월)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은 33.9%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산업부, 디자인·공학 융합 인력 1000명 양성

디자이너 대상 신기술 교육도

정부가 디자인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자인과 공학 역량을 갖춘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2019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디자인이 전 산업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구상은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이다. 산업부는 기업 수요에 맞춰 2022년

까지 디자인과 공학 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 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현업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 교육을 하고 디자인 아이디어 제품화를 돕는 '시제품 제작 바우처'도 지원한다.

정부는 디자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출신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 국가 산업단지에 '디자인 혁신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에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관련 데이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비바크 부어스트’ 최종평가 5점 만점... 완벽한 1위



프랑크 소시지 평가표

구분	한성기업 비바크 부어스트	동원 F&B 임팩트프로그래밍 부어스트	롯데푸드 연세이치 후랑크	농림축산식품부 원형을 지키는 프랑크	CJ제일제당 임강향 그릴 후랑크
모양새	4.2	3.8	2.4	3.4	1.2
향미	4.8	3.2	2.8	2.8	1.4
식감	4.2	2.8	3.8	2.6	1.6
육즙	3.8	3.0	3.6	3.2	1.4
풍미	4.8	2.4	4.2	2.2	1.4
1차 종합평가	5.0	3.2	3.0	2.4	1.4
원재료·영양성분 평가	4.6	2.8	2.4	2.6	2.6
가격공개 후 최종평가	5.0	3.0	2.8	2.6	1.6



서울 영등포구 컨싱턴호텔 뷔페 '브로드웨이' 세트들이 5일 호텔 1층 브로드웨이에서 프랑크 소시지 5개 제품을 맛보며 평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민 총주방장, 손은덕·오영준·박정수 셰프, 김순기 상무

점유율은 5위지만 맛은 압도적 1위!

평가에는 5명의 셰프가 함께했다. 김순기 컨싱턴호텔 상무, 김중민 총주방장, 박정수 손은덕 오영준 셰프가 ①~⑤번호를 붙인 접시에 담긴 프랑크 소시지를 평가했다. 평가자들은 모양새, 향미, 식감, 육즙, 풍미 5가지 항목 점수를 종합해 1차 평가를 내렸다. 이어 원재료 및 영양성분 평가를 한 뒤 마지막에 공개된 가격을 고려해 최종 점수를 줬다. 최고 5점, 최저 1점의 상대평가였다.

시장조사기관 날스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크 소시지 점유율 1위 업체는 CJ제일제당(21.8%)이고 농림축산(16.6%), 롯데푸드(15.1%), 동원F&B(9.8%), 한성기업(9%)등 순이었다.

시장 점유율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평가자들에게 제품명과 업체를 공개하자 흥미로운 결과로 감탄사가 쏟아졌다.

한성기업 '비바크 부어스트'가 최종 점수 만점(5.0점)으로 완벽하게 1위에 올랐다. 시장 점유율은 9%밖에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 놓았다.

한성기업 제품은 5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원재료와 영양성분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다른 제품들을 압도했다.

김순기 상무는 "원재료에 들어간 고기의 양, 모양새, 향미와 식감, 육즙까지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뛰어난다"며 "독일산 소시지의 맛을 비슷하게 구현해 냈다"고 말했다.

손은덕 셰프도 "풍미와 식감이 좋았는데, 간이 적절했던 것도 한몫했다. 찌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맛이였다. 그릴에 구워서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4위는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 평이한 제품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중민 총주방장은 "브런치 메뉴에 걸맞게 딱 좋은 크기와 모양이다. 그것만으로도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고용한파 녹여라”... ‘춘제’ 앞두고 돈 푸는 中

무역전쟁 여파로 일자리 급감 中 당국 사회문제로 확산 우려 94兆 투입... 경제자극 간간힘

중국 정부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날)’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고자 간간힘을 쓰고 있다. 춘제를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거래를 통해 시중에 5700억 위안(약 94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민은행은 현금 수요가 많은 춘제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중에 푼 유동성은 사상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민은행이 경기둔화에 따른 ‘돈맥경화’를 우려한다는 의미다. 이뿐만

중국 제조업 고용 추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 주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2조 위안 상당의 감세와 수수료 감면에 나서고 지방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2조 위안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는

실업률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시장이 흔들리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상황이다. 주하이빈 JP모건체이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춘제를 전후한 실업률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춘제는 2월 초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원이 귀향할 수 있도록 1~2주간 휴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영향으로 심지어 작년 12월 초부터 공장 문을 폐쇄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중심지인 광둥성의 한 기업인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월에도 공장을 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한탄했다.

시장조사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에리안 추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 “37만4000개 제조업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약 28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UBS는 별도 조사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수출산업에서 지금까지 약 150만 개 일자리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UBS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은 물론 외국계 합작사 등 125개 제조업체 최고재무책임자

(CFO)들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들 중 23%는 미·중 무역 긴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감원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34%는 향후 6개월 안에 직원 해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18%는 임금을 삭감했다.

이런 일자리 상실은 제조업은 물론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의 킬랜드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이 정도로 중국 고용시장이 약해진 것은 증시가 패닉에 빠진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신경제로 분류되는 소매와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지난해 4분기 고용 약화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의 조사 방법을 따라 매 분기마다 3300여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이나 베이지북’을 발행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이폰 부진’ 애플 신규채용도 줄인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최근 실적 예상치를 크게 낮춘 애플이 신규 채용도 줄인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회의에서 애플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의는 쿡 CEO가 투자자들에게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마련됐다.

쿡 CEO는 실적 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채용을 동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채용 동결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고용을 줄일 부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인공지능(AI) 등 주요 부문에서는 신입사원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특정 사업 부문에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애플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는 등의 축제의 잣대는 아님을 덧붙였다.

채용 감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텍사스 오스틴 사옥 신설 계획이나 애플 오리지널 비디오 콘텐츠 팀이 들어갈 로스앤젤레스 사옥 확장 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대변인은 블룸버그의 공식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일 2019 회계 1분기 매출 예상치를 840억 달러로 발표하며 직전 예상치보다 5~9% 낮췄다. 쿡 CEO는 애플 선임 부사장 등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아이폰 판매 둔화가 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나는 ‘외부 요인’을 핑계로 대지 않는다”며 “이 순간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고 행동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애플은 아마존 기기에 애플뮤직을 열고 삼성전자 스마트TV에 아이튠스 무비·TV쇼를 탑재하는 등 서비스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계속하면서 제3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길어지는 ‘셋다운’에 ... 美 ‘제로성장’ 우려 고개

“GDP, 매주 0.13%p씩 하락” 3월까지 이어지면 경기둔화 경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멈춘 지 한 달이 가까워져 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제로(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셋다운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0.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셋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4주째인 현재까지 미국 경제 성장세가 0.5%포인트 하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3월 말까지 셋다운이 이어진다면 GDP 증가율은 1.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1분기 GDP 증가율이 2.2%였던 점을 고려하면 1%를 밑도는 0%대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셋다운이 1분기 내내 지속되면 분기 성장률을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제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는 셋다운의 영향으로 1인당 GDP가 2주마다 0.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지만 매주 0.1%포인트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셋다운의 경제적 파장이 기존 예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연방정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셋다운으로 한 달 가까이 끊긴 상황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라고 시위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210만 명 중 약 80만 명이 셋다운의 영향으로 일시 해고나 임금 지급 중단, 업무 축소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 새크라멘토/AP연합뉴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정부 고용인원은 미국 전체 인력의 10% 미만이지만 많은 경제적 인프라가 이들 노동자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BNP파리바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프리드먼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셋다운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이번주까지 지속된다면 성장 둔화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이 박물관에 가지 않거나 외식을 삼가는 등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셋다운이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셋다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 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베이지북(Beige Book)’에서도 미국 대부분 지역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지만에서도 일부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지북에는 연준이 미국 전역의 12개 관할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의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12개 지역 중 8곳에서는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낙관적인 진단이 나왔지

만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시카고 등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년 의회 국정연설도 셋다운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국정연설 날짜를 연기하거나 연설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전달해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美, 화웨이 ‘기술탈취’ 혐의 수사... 곧 기소”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검찰이 미국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에서 영업 기밀을 훔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T모바일의 스마트폰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 기밀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T모바일이 2014년 화웨이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내용 일부에서 시작됐다. T모바일은 화웨이 이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T모바일은 당시 화웨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모바일은 판매한 휴대폰의 품질 관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태피’라는 시험용 로봇을 개발했다. 화웨이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피 정보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화웨이 직원이 T모바일 연구소에서 허가없이 태피 사진을 촬영하고, 감시 카메라에 비치지 않도록 태피 일

부를 노트북 가방에 숨겨 실험실 외부로 반출했다. 나중에 화웨이 직원들은 부품 반출을 인정하면서 화웨이의 연구·개발(R&D)에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시애틀 민사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화웨이가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48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수사 진행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WSJ에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화웨이 역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도 직원 두 명이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을 포함해

“이통사 ‘T모바일’ 영업기밀 훔쳐” G2 장관급 무역협상 앞두고 찬물

중국의 기술 탈취와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영업 기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영 기업과 대만 파트너를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무역 협상을 열릴 가장 앞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다시 양국 긴장감을 당기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참모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오는 30~31일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운 기자 gamj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응원하기에
동행하는 행복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응원하기에

2019년 1월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담보보다 기술... 은행권 '기업투자' 눈떴다

자산 위주 '기업평가' 인식 변화
펀드 등 유망 스타트업 육성 탄력

금융사, 건전성 관리 위험 부담
규모 대비 적은 투자금 비난도

국내 시중은행이 '혁신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눈에 보이는' 자산 위주의 담보대출을 고집하면서 기업입장에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혁신 기술을 갖췄더라도 내세울 만한 담보가 없어 투자는 고사하고 대출도 어려웠다. 이제는 은행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은행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대표 수혜자로 꼽힌다. 신한은행과 KB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총 92억 원의 지분을 투자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취약했던 P2P 금융사가 은행에 투자금액을 위탁하는 '신탁관리시스템' 도입도 신한은행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우리처럼

	지원금액	금융사	시점	총투자금액
신한금융	81억2000만	신한은행	2015년 말	약 92억
KB금융(인베스트먼트)	134억	kb인베스트먼트	2016년 중순	-
우리은행	180억	한화인베스트먼트	2018년 중순	-
하나금융(하나벤처스)	미정	-	-	-

※출처: 각 금융사

사람과 기술, 비전 빼고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이 없는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금융사들이 이를 인정해주고 투자했던 것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변화는 신규 업체엔 호재"라고 밝혔다.

유망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적극적인 곳은 신한금융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신한벤처스랩 5기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2015년 5월 출범 이후로 총 23개의 스타트업이 81억2000만 원 가량의 '직접 투자' 혜택을 받았다. 신한금융은 올해도 지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최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KB금융도 2015년 8월부터 KB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육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56개의 스타트업이 KB스타터스로 지정돼 총 134억 원의 계열사 투자(직접) 및 CVC 펀드(간접)의 수혜 대상이었다.

우리은행도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발하다. 지분을 직접 사들이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와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12개 업체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11월 2차 공모는 8개 업체가 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비슷한 규모로 공모, 수시모집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

다. 지난해 말 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하나벤처스'를 출범시켰다. 하나벤처스는 11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펀드 운용에 나선다. 다만 아직 거대 금융사의 지원치고는 금액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다. 건전성에 집중해야 하는 금융기관 특성상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스타트업에, 그것도 대출이 아닌 투자하리란 위험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직접 투자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건전성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험한 방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방향성에 따라 은행들이 움직이면서 투자가 끊긴 사례도 있다. 블록체인의 금융플랫폼을 제공하는 코인플러그는 2015년 말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투자는 없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로 당국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탓이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마땅한 담보가 없는 신규 기업에 1금융권의 투자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국 정책에 따라 지원이 되기도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팩진산 기자 jinsan@

빛 못 갚아 담보 잡힌 집 경매 없이 개인회생 가능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돼 있는 탓이다. 담보대출은 담보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에 내놓으면 채무자는 당장 살 곳을 잃는다.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 신복위의 워크아웃(민간 채무조정)은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자가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연계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 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자로 신청을 제한한다.

신용 빚을 우선 갚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3~5년 간 개인회생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 회생 절차가 끝나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된다. 빚을 갚는 동안 담보 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식도 도입한다. 분할상환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상환 유예(거치기간 부여)와 금리 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우면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 감면을 차례로 적용한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한이현,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사퇴

한이현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가 17일 오후 사퇴했다. 이에 남영우·박재식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최종 회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는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회에 사퇴 의사를 밝혀와 중앙회장 선거는 최종 2명이 경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후보사퇴 이유와 관련해 "16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을 받는데까지 준비해 심심껏 임했으나 면접 도중 회추위원으로부터 '내부방침'이라며 회장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접시간에 세 후보자 모두에게 연봉삭감 통보를 했다고 하니 면접 목적이 자질과 역량 검증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이런 행동은 '후보자들이 연봉만 즐기려는 무능한 자들'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실시될 최종 후보 선정 투표에는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와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의 '일대일' 대결로 치러진다. 이날 기호 추천 결과, 1번 남영우 후보, 2번 박재식 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21일 최종 투표에는 총 79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형식으로 진행된다. 성립 조건은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銀-잘로, 디지털 대출상품 개발 '맞손' 신한은행은 16일 베트남 1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잘로(Zalo)'와 디지털 특화 대출상품 '포켓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켓론은 신한베트남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와 잘로의 모바일 플랫폼이 결합된 모바일 간편 대출상품이다. 이날 위성호(오른쪽) 신한은행장과 브영 광 카이잘로 CEO(최고경영자)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채권 상각·분할 매각... 성동조선 '부활 뱃고동'

업황 개선 등 매수 부담 줄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동조선해양의 두 번째 매각 시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분할매각 시도와 조선업황 개선 분위기, 그리고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채권 상각처리 등이 원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성동조선 분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자 3곳이 참여했다. 그중 한 곳은 통영·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기업, 또 다른 한 곳은 성동조선에 기자재를 공급해온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두 기업을 견실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분입찰 접수 투자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창권 판사)는 이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2월 중에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성동조선은 작년 10월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매각이 무산된 지 3개월 만에 첫발을 댈 셈이다. 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이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성동조선은 조선소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성동조선의 핵심 부지인 2야드와 나머지 야드의 성격과 가치가 판이해, 이를 한 번에 매매하는 데 원매

2018. 3. 22	기업회생절차 신청
4. 2	기업회생절차 개시
8. 2	1차 M&A 공고(통매각)
10. 2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인수 무산
10. 31	2차 M&A 공고(분할 매각)
12. 14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2019. 1. 16	본입찰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
2월 중	본계약(예정)

자들이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 성동조선은 이번 매각에서 분할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동조선의 '2차 M&A 공고'에 따르면 매각 대상 자산을 일괄매각과 분할매각으로 나누고, 분할매각을 1야드, 3야드 잔여부지, 그밖에 투자유치로 나눠 인수대상을 선별토록 했다.

또한 조선 경기 회복 분위기도 한몫했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작년 1~8월 중 756만5000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이자, 1년 전과 비교하면 101.3% 늘어난 수준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이정필 기자 roman@

하나銀, 통합 4년 만에 '화학적 결합'

인사제도 통합안 투표 통과

KEB하나은행이 통합 4년만에 진정한 '원뱅크'를 실현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옛 하나·외환은행' 간 인사제도 통합안 투표가 17일 통과됐다. 앞서 2015년 통합은행 출범했지만, 인사·급여·복지제도도 통합되지 않아 출신 은행에 따라 관련 제도를 달리 적용됐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사제도 통합안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등 두 가지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임단협 주요 사항은 일반직급은 2.6%, 저임금직군(2차 정규직)은 4.6%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통합안은 지난해 28일 52.2%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됐다.

통합안의 골자는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통합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직급체제를 옛 하나은행에 맞춰 4단계로 통일한다. 임금은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의 수준을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의 98%이상으로 높였다. 복지제

도는 두 은행의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기개발, 건강 증진 자녀교육, 주택지원, 육아휴직 등 복지를 확대한다.

하나은행 출신 직원 A씨는 "전보다 나빠질 건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환은행 출신 직원 B씨는 "동기들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합칠때도 됐다"고 생각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통합안의 또 다른 의미는 2022년까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여는 데 있다. KEB하나은행은 구 하나 '행원B', 구 외환 '6급'에 해당하는 2차 정규직이 21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이 맡는 업무는 텔러 등 타행 무기계약직과 같지만 정규직과 임금만 다를 뿐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받아 '2차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노사는 승진 자격 신설 및 연수제도를 도입해 3년에 걸쳐 정규직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다만 2차 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은 풀어야할 과제로 주어졌다. 치열한 공채를 뚫고 들어온 대졸 정규직 행원의 불만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혁신은 실패 먹고 자란다”...SK, 창업 직원 재입사 보장

**사내벤처 키우는 최태원 회장
안전장치 마련해 직원 도전 독려
별도 조직서 2년 준비 거쳐
사내사업화 혹은 창업 선택
삼성, C랩 500개 벤처 지원**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사내벤처 주인공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올해 6개 사내벤처를 만들기로 한 배경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혁신성장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 회장이 혁신 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 강조하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 이번 사내벤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라는데, 이것을 사회가 용납 못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SK하이닉스 사내벤처 참여 직원들은 기간 내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창업 후 실패해도 재입사를 보장받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다. 이번에 선

발된 사내벤처 주인공들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 전담 조직에서 최대 2년 동안 벤처 창업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받으며 준비 과정을 거친다. 이후 창업 혹은 SK하이닉스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게 된다.

전담 조직에서는 근무시간 자율제와 절대평가 기준 인사평가로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만약 최종 사업화 과정에서 창업이 아닌 사내 사업화를

선택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해당 임직원에게도 일정 부분 나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이캐러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이번 사내벤처 운영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중소

기업벤처부는 지난해부터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등 다른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에 힘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사내 C랩 프로젝트(C랩 인사이트)를 포함, 500개의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내벤처는 이미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다. ‘CES 2017’에서 소형

스마트 프린터 ‘망고슬래브’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도 C랩 출신 스피노프(분리회사) 기업 3곳이 CES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웨어러블 카메라 ‘핏360’으로 디지털이미징·포토그래피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은 ‘밍크플로우’는 올해 ‘핏360 커넥트’로 혁신상을 받아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내벤처는 모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모기업은 사내벤처를 통해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GE, 인텔, 3M과 같은 미국 대기업도 사내벤처를 활발히 형성해왔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은 구글 사내벤처로 시작한 회사다. 국내 대표 기업 네이버 역시 삼성SDS 사내벤처에서 출발했다.

물론 대기업 사내벤처라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내벤처기업이 분사해 모기업과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과제”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갤럭시 이벤트 빠진 MWC...LG, G8 내놓는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다음 달 전략 ‘스마트폰’ 붓물
화웨이 폴더블폰 공개 가능성
소니·샤오미도 새 모델 행사
삼성, 美서 갤럭시 10주년쇼**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빠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주인공은 누가 될까.

삼성전자는 매년 MWC 전날 그해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독차지해왔지만, 이번에는 MWC에서 별도 행사 없이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하는 신제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6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번 MWC에서는 LG전자, 화웨

이, 소니 등이 새 스마트폰을 발표하며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LG전자는 ‘G7 씽큐’의 후속작 ‘G8 씽큐’(가칭)를 MWC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작년 G7 씽큐가 5월에 공개됐던 것과 비교하면 공개 속도가 2개월 이상 빨라졌다. 이 스마트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전작에서 선보인 ‘노치’보다 더 작은 ‘물방울’ 노치 디스플레이와 후면 트리플 카메라도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K LCD 화면을 장착하고 스피커가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크리스털 사운드 울레드’(CSO)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공개하면서 5G를 지원하는 라인업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3월 국내 출시가 예상된다.

화웨이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MWC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시

리즈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는 작년 ‘P20 프로’에서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처음으로 장착해 멀티카메라 트렌드를 이끈 바 있다.

P30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인 ‘P30 프로’는 카메라 개수가 하나 늘어나 네 개의 후면 카메라를 장착할 전망이다.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 물방울 노치 디자인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MWC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할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소니는 최근 외신을 상대로 2월 25일 스마트폰 공개 행사를 알리는 초청장을 보냈다. 외신은 소니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XZ4’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원플러스, 샤오미, 오포 등도 MWC에서 어떤 새 스마트폰을 공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업호감도 다시 나빠졌다

**1년 만에 56→54점 떨어져
“일자리 창출 기대 못 미쳐”
대기업 부정적 평가 많아**

지난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 호감도는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업호감지수’(Corporate Favorite Index·CFI)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53.9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CFI는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더 많은 것이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다. CFI는 2016년 47.6점에서 2017년 55.8점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하락 반전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호감도가 모두 하락했다. 대기업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3.2점이 하락한 49.0점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중소기업 호감도는 58.4점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1점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의 구조적 하락 속에 체감도가 가장 큰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국민 기대에 다소 못 미쳤고, 일부 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호감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각 부문별 호감도 지수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제적 기여’ 점수는 62.8점으로 전년 대비 2.5점 떨어졌고, ‘사회적 공헌’은 46.9점, ‘규범·윤리 준수’는 44.2점을 기록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상의의 자문위원인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호감지수가 좌우되고 있다”며 “지난해는 일부 업종의 슈퍼호황으로 경제 부진이 일부 가려졌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올해 체감경기 지표가 본격 하락하게 된다면 호감 지수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은 그 이유로 ‘국가경제 발전 기여’(42.4%)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36.9%), 국가 브랜드 향상(12.5%), 기업문화 개선 노력(3.4%), 사회공헌활동(2.7%) 등의 순이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준법·윤리경영 미흡’(44.4%)을 꼽았다. 후진적 기업문화(20.5%), 일자리 창출 부족(19.0%), 사회공헌 활동 미흡(7.8%)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폴더블폰 기다리는 화학업체 앞다퉀 ‘소재 혁명’

**SK이노, 플렉시블용 제품 개발
코오롱, CPI 필름 양산 체제 갖춰
SKC, 투명 PI 필름 상업화 임박**



삼성 폴더블폰 시제품.

연합뉴스

화학업체들이 이른바 ‘~able(에어블)’ 혁명에 대비한 ‘소재 혁명’에 뛰어들고 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10년 만인 올해 또 다른 혁명을 불러올 폼팩터 제품 출시가 예고돼 있다. 폴더블(foldable), 롤러블(rollable), 스트레처블(stretchable) 등 ‘에어블’ 제품이 등장을 예고하며 화학 업체들 역시 혁신적 소재 출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9’에서 SK이노베이션은 휘어지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의 핵심소재 FCW(Flexible Cover Window)를 선보이면서 본격 사업에 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보유하고 있던 PI

(폴리이미드 필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투명성을 가지면서도 수만 번 접었다 펴도 부러지거나 접은 자국이 남지 않아야 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 특수 하드코팅(HC)기술과 지문, 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코팅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투명 PI 필름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 들었다. 지난해 4월 폴더블폰 3000만 대 분량의 CPI 필름 생산설비를

구미에 준공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CPI 필름 양산체제를 갖췄다. CPI와 관련해 국내 특허의 약 80%를 차지하는 104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도 독보적이다. 최초의 폴더블폰을 선보인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CPI 필름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SKC 역시 지난해 투명PI 필름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설비를 도입하고 10월 이후 상업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블 혁명으로 화학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며 수익원 역시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SA는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주요 시장인 글로벌 폴더블폰 예상 판매량은 2022년 5010만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에서부터 TV, 자동차, 가상현실(VR) 등으로 용도 및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경연 “韓 배터리 경쟁력 中·일에 뒤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경쟁 또한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시장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지난해 11%

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한경연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경쟁력 종합 비교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45점을 받았다. 반면 중국(8.36)과 일본(8.04)이 한국보다 우위를 점했다.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쳐졌다. 시장점유율과 사업 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변호선 기자 hsbun@

항공·물류·전자...설·슈퍼볼 '대목 터치다운' 준비

물동량 지난해보다 많을 듯
항공편 늘리고 택배 비상근무
포스코, 협력사 대금 미리 지급
미국선 삼성·LG TV 할인 경쟁

설 연휴와 미국 슈퍼볼 시즌을 앞두고 관련업체가 '대목'잡기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올해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초부터 실적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설 연휴 귀성객을 위해 특별 임시편을 편성했다. 지난해 설 연휴동안 인천, 김

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200만 명을 넘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부터 일찌감치 임시 항공편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편성 일자리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로 김포-제주, 김포-부산 2개 노선에 임시편이 추가된다. 공급 규모는 총 32개 운항편에 대한 6746석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012석 늘어났다. 또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해외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 일부 인기노선의 항공편을 늘릴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에는 임시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설 연휴에 앞서 물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번 설 물동량이 평소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5주간을 설 명절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했다. 또 업계 최초로 도입한 '갯봇'(대화형 로봇)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택배 관련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대목잡기는 아니지만 장기 고객 확보 등을 위해 '감동'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다. 현대차는 설 연휴 기간 총 250대의 귀성 차량을 무상 대여해주는 '7박 8일 렌탈 시승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난해보다 기간이 하루 더 늘었다.

거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관련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다. 포스코는 거래기업에 대금 2743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지급해오던 대금과 매출초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매일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대기업들도 연휴에 앞서 협력업체들에게 자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다음달에 열리는 슈퍼볼 시즌에 앞서 TV특수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슈퍼볼 시즌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미국 현지 시

장에서 TV가 제일 많이 팔리는 기간 중 하나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화면 사이즈 TV 할인폭을 대폭 늘렸다. 특히 LG전자 미국법인은 올레드(OLED) TV 가격을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B 시리즈' 제품 중 65인치 올레드 TV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보다 200달러 더 할인된 2300달러(약 25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연말에 이어 현재까지 할인 판매를 지속 중이다. 월마트 홈페이지 기준으로 65인치 클래식 4K 울트라 HD 스마트 QLED HDR TV 2018년 모델은 약 1598달러(약 179만원)에 판매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CGV용산아이파크몰 내 LG 그램 체험존에서 모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받은 LG 그램 17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 그램, 벌써 세 번째 기네스북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
1340g 불과...CES 혁신상도
앞서 14인치·15.6인치 등재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보유하게 됐다. LG 그램 17은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340g에 불과하다. 이는 13인치대 일반 노트북 무게와 비슷하다.

LG 그램 17을 포함한 LG 그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출시 후 15일 만에 3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최단 기간 내 3만 대 돌파 기록이다.

LG 그램 17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선정한 'CES 혁신상(CES 2019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고, 리뷰드닷컴(Reviewed.com), 테크레이더(TechRadar) 등 해외 유력매체들로부터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엠게임 '나이트 온라인' 대만·홍콩·마카오 서비스

엠게임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나이트 온라인'이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이트 온라인의 현지 서비스명은 '무사전기'다.

'나이트 온라인'은 지난해 10월 수출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빠른 현지화 작업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 대만에서 지난 2002년과 2011년 두 차례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어 현지에서 인지도도 높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비공개 테스트에서 '나이트 온라인' 플레이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전체의 65%에 달했으며 대만의 유명한 게임 포털 사이트인 바하무트

내 온라인게임 인기 순위 15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만 지역 퍼블리셔 '디검(DiGeam)'은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과 TV, 유튜브를 통한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명근 엠게임 해외사업부 실장은 "현지 퍼블리셔 디검은 지난해 3월 오픈한 자사의 온라인게임 귀훈도 최고 인기 순위 5위에 재진입 시키며 우수한 서비스 능력을 보여줬다"라며 "더욱 풍부해진 콘텐츠와 대만 내 인지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인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에어컨에 "TV 좀 틀어줘"...AI 스피커가 따로 없네

삼성 2019년 무풍 에어컨
"가전 제어 등 홈 IoT 중심"

가족 개개인 성향 따라 냉방
극초미세먼지 99.9% 제거

삼성전자가 17일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업그레이드된 무풍 냉방 기능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2019년형 '무풍 에어컨'〈사진〉신제품을 공개했다.

2019년 무풍 에어컨은 사각지대 없는 공간 냉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풍패널 안쪽에서 강력한 냉기를 뿜어내는 3개의 '하이패스 팬'에 바람을 위로 끌어 올려 멀리 내보내 순환시키는 '서클레이터 팬'까지 새롭게 더해 기존 대비 20% 더 풍성한 바람을 빠르게 순환시켜 준다.

특히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삼성의 인공지능 플랫폼 '뉴 빅스비'가 탑재됐다. 무풍에어컨과 연결된 TV, 공기청정기 등 사



성 제품들을 제어하면서 날씨·증권과 같은 생활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제공하는 기존의 인공지능 냉방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위치 기반 '지오펜스' 기술을 활용해 가족 구성원 조합에 따라 선호하는 냉방 모드를 학습해 자동 운전한다.

유미영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팀 상무는 "무풍에어컨은 가정 내 TV, 공기청정기와 연동을 하면서, AI 스피커 기능을 소화하는 등 홈 IoT(사물인터넷) 중심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압축기 등 핵심부품 성능을 개선해 무풍 냉방 모드 사용시 일반 냉방 대비 최대 90%까지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청정 기능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극세 필터·전기집진필터·탈취필터로 이루어진 'PM1.0 필터시스템'과 미세한 전기장 방식으로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먼지도 99.95% 제거할 수 있는 'e-해파 필터'를 더해 최대 113㎡(제곱미터)의 넓은 공간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2019년형 벽걸이형 무풍에어컨 신제품과 공기청정기 삼성큐브 67㎡ 신제품도 선보였다.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 신제품은 '트라이앵글 디자인'으로 바람을 더욱 멀리, 상하좌우로 넓게 보낸다. 공기청정기 신제품은 기존의 47㎡ 제품과 결합해 114㎡의 용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벤츠코리아 "韓, 세계 5대시장...올 친환경차 4종 출시"

전기차 EQC 공개

지난해 수입차 최초 연간 판매 7만 대 판매를 넘어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올해 친환경차에 집중한다. 순수 전기차(EV)를 포함 4가지 친환경차를 내놓는 한편, 서비스와 판매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사업전략과 제품계획 등을 밝혔다.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한국법인 사장은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모델 EQC를 올해 선보인다"며 "세단과 SUV에 걸쳐 4가지 친환경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EQC 출시와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이동성) 구현에 필수적인 충전 서비스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며 통합형 충전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차지'를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모델인 EQC와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벤츠코리아

함께 소개했다. 지난해 전세계 벤츠 판매량은 231만여 대로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판매(승용부문)량은 2016년 8위, 2017년 6위에 이어 작년 5위로 올라섰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총 7만

798대를 팔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이다.

이같은 판매량은 중국과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우리보다 차 시장 규모가 3배나 큰 일본보다 벤츠 판매량은 한국이 많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하우시스 '지아자연에' 리뉴얼

LG하우시스가 지인(Z:IN) 바닥재 '지아자연에'를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아자연에'는 제품 표면에 식물 유래 성분을 적용한 LG하우시스의 친환경

인테리어제품 라인인 '지아(zea) 시리즈' 시트 바닥재로, 지난 2017년초 출시 이후 2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과 생활환경오염 감소 성능을 인정받아 환경마크를 획득했으며 바닥재 표면에 미끄러움을 줄여주는 안티슬립(Anti-slip) 기능을

적용해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찍힘과 긁힘 및 변색에도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지아자연에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따라 보다 풍부한 컬러와 다양한 패턴을 추가했으며 우드 및 대리석 등 소재들이 갖는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을”... “일자리쫓 등 참여폭 확대”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첫 방문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검토... 하반기 입법 추진
중기부 관련 주무과 4개 이상으로 조직 확대 체계적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 수립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홍 부총리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부총리가 연합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각종 정책 수립에서 연합회의 의견이 정책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만들어졌다. 작년 5월 출범 뒤 9차례 전체 회의가 진행됐고 그중 4차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

재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일자리위원회는 위촉직으로 위원이 바뀌는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합회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대표가 들어갈 여지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 소상공인 관련 과가 4개 밖에 없는 부분은 조직을 개편해 개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그만큼 자영업 대책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장 소통이 부족해서”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통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이 적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최 회장 말처럼 소상공인 영역이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루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면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16일) 말씀드린 것처럼 최

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다”며 “업종, 지역, 규모, 나이, 내외국인별 차등적용을 검토했으나 전문가들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요청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동안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뿐이라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설명드렸고, 연합회 측에서도 이해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중기부 비롯한 16개 관계부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 기본법은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큰 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LG CNS ‘이더리움 기업 연합’ 가입

R3·하이퍼레저 이어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모두 참여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박차

LG CNS는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회원사가 됐다고 17일 밝혔다. EEA와 R3, 하이퍼레저 등 세계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모두 가입하면서 최신 기술 활용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블록체인 관련 사내벤처를 통해 기업용(Enterprise)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EEA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이다. 2017년 출범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50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선 삼성SDS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이 EEA에 가입해 있다.

EEA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기술 발전을 추구한다. 이더리움 기술은 누구나 채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이선스프리)로 만들어졌다. 가

입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기술로 이더리움을 표준 기술로 채택해 다른 블록체인 간 생기는 문제를 줄이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다. EEA는 어떤 기업에도 열려 있다. 초기 200개에서 회원 수가 대폭 늘어 500여 개 기업이 가입하는 등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부상했다.

LG CNS는 EEA 가입을 시작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전문성과 사업 분야를 늘릴 계획이다.

LG CNS는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하고 있다.

EEA와 하이퍼레저, R3 등 3개 단체는 각기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기업용 기술을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업계는 이들 3개 기술을 기업용 글로벌 톱3 블록체인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R3와 관련해서 LG CNS가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시스템통합(SI)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LG CNS는 2017년 R3블록체인 플랫폼 코드(Corda)를 활용해 국내외 은행 총 20여개가 참여한 글로벌 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 ‘아전트’에 참여했다. 한국은행 자금이체 업무관련 모의테스트도 실시한 바 있다.

기업용 블록체인은 ‘허기형 블록체인’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사전에 합의한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가 필요없는 구조다.

앞서 LG CNS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1월말 시범서비스 오픈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 문서 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토대로 구축되며, 모나체인의 기반 기술이 바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충남 서산의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 M.Billy가 KT 5G 통신을 이용해 시범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KT ‘5G 자율주행차’ 속도

현대모비스 서산 주행시험장에 실증단지 구축
올 하반기 차량-사물 간 통신기술 등 개발 예정

KT가 5G 통신망을 앞세워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와 기술개발 협약 이후 실증단지 구축까지 완료하면서 5G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KT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5G 상용망이 민간 기업에 적용돼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E보다 10배 빠른 5G 망을 이용할 경우 응답 속도가 0.01초 내로 이뤄져, 운전자들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시속 100km/h 자동차가 5G로 위험을 감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28cm에 불과하다. LTE의 경우 10배인 2.8m를 지나야야 위험을 전달 받는다.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이용해 올 하반기까지 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C-V2X: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C-V2X 기술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때문에 기존 무선망에 비해 응답시간이 최대 10배 빠른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기 개발을 전담하고, KT는 교통정보 서버와 5G 인프라 장치를 이용해 도로공사 정보, 신호등 정보, 급커브 경보 등의 정보를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은 선행 차량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해 후행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KT는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5G 단말기와, 5G 통신 기지국 간 연결을 지원한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차 엠.빌리(M.Billy)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추출해 서버로 송신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박운영 KT 기업사업부부장(부사장)은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검증된 5G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판교 제로시티 실증사업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성공적으로 운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요소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협력해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신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중 위원을 위촉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ICT융합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는 등 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

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도 확인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의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해 줘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디저트 카페야, 도시락 가게야”... 식품특화 전략 통했다

규제 풀어 소비 불씨 되살리자

③ 지역·세대 맞춤형 제2도약 노리는 편의점



불티난 한정판 푸딩 파르페 신선식품 앞세워 수익 견인

곳곳에 실버용품 전문 코너 ‘노인층’ 지갑 열어 내수 진작

■ 일본 치바현 이온그룹 인근 편의점

반찬 골라담는 선택형 도시락
치킨·주먹밥·커피 등 다양해
별식 즐기는 혼밥족 사로잡아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온그룹 본사 인근의 한 ‘미니ストップ’ 편의점. 지난해 12월 방문 당시 330엔(약 3400원) 상당의 ‘푸딩 파르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학생 문수경(21) 씨는 “이 파르페를 꼭 먹어보고 싶었다. 기간 한정 제품이라 판매를 중단했다가 인기가 좋아 이번에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주문 즉시 점원이 주방에서 파르페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기사도 푸딩 파르페를 직접 맛봤더니 고급 디저트 전문점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주었다. 이 밖에도 패스트푸드(FP) 메뉴로 카페라떼(핫, 아이스), 로얄 밀크티, 소프트크림(바닐라, 딸자), 풍당쇼콜라, 치킨 등이 다양한 구색을 갖췄다.

마치 전통시장의 ‘반찬가게’ 축소판을 연상시키듯 각종 반찬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선택형 도시락’ 코너도 인상적이었다. 소비자가 직접 반찬(연어 셀러드 등)을 골라 무게를 달면 100g당 183엔(세금 포함)에 도시락의 총가격이 매겨진다. 대중 끼니를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별식’이자 충실한 식사가 될 만한 수준이었다. 창가 쪽 한 편에는 독서실 칸막이처럼 1인용 바 좌석이 마련돼 오후 3시쯤인데도 오롯이 ‘혼밥’을 즐기는 이들이 속속 포착됐다.

일본 편의점들의 매출 부진 타개책은 ‘식품’이다. 국내에서도 도입한 ‘세븐커피’는 일본의 2013년 올해의 히트상품 1위(일본 경제지 닛케이 트렌디 선정)에 올랐다. 일본 전국의 세븐일레븐에서는 주먹밥이 연간 22억 개 팔려나간다. 프리미엄화 전략도



편의점 내 1인용 바 좌석



츠루하시 적십자 병원 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노인들

공격적이다. 일본 편의점 체인 ‘로손’은 프리미엄 매장인 ‘내추럴 로손’을 내세워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저칼로리 도시락, 유기농 식품, 갓 구운 빵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편의점의 식품 카테고리 강화는 한국 시장 공략으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미니ストップ 2533개(지난해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이온그룹은 신선식품 매장에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도 ‘패스트푸드에 강한 편의점’을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니ストップ은 기존 점포를 신선식품 특화매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일본에서 만난 이온그룹 관계자는 “일본 편의점의 장점인 도시락 등의 식품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매장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하고 외식업계에도 뒤지지 않는 도시락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치바(일본)=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편의점

전체 인구의 28% 노인층 차지
병원·고령화 지역 중심으로
성인 기저귀 등 노인용품 갖춰

일본 오사카에 도착하자 눈에 들어온 것은 ‘일하는 노인’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간사이공항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전동차를 타고 공항을 청소하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였다. ‘일하는 노인사회’가 매스컴에서나 외치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라는 걸 체감했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총인구 1억2652만9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547만1000명에 달한다.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8%나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지갑을 여는 것은 일본 경제의 내수

진작과 직결된다. 일본 유통업체들이 노인층을 겨냥한 상품을 경쟁하듯 내놓는 이유다.

기자가 방문한 오사카는 일본의 ‘쇼핑 메카’다. 난바 역에서 도톤보리를 지나 신사이바시 역까지 이어지는 쇼핑거리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에 의한 상업이 대다수다. 그런 데도 이 쇼핑 관광지에서 높아지는 일본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존재한다. 신사이바시 역 근처 쇼핑거리에는 ‘다이소’ 매장은 노인층이 자주 찾는 상품만을 따로 모아놓은 코너가 있다. 지팡이, 틀니 보관용 통과 세척액, 성인용 대소변 시트, 일회용 턱받이, 각종 관절 보호대, 파스 등이 비치돼 있다. 다이소 직원 모나카(38)는 “성인용 대소변 시트가 가장 잘 나가고, 이색 상품으로는 탁자에 고정할 수 있는 지팡이가 있다”며 “이곳은 관광객이 주로 오는 지역이라 노인층 소비자가 눈에 띌 만큼 많지 않지만, 다른 다이소 매장은 노인층을 겨냥한 상품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편의점도 노인층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며 이들의 지갑 열기에 나섰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병원 내 편의점은 철저히 노인 고객 중심의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오사카 난바 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츠루하시 역 인근 적십자 병원에는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입점해 있다. 이곳 편의점의 한쪽 벽면은 노인층을 겨냥한 상품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15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성인용 기저귀, 틀니 세척 솔, 씹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골라 먹는 간편죽, 머리가 빠진 노인을 위한 모자, 물을 삼키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물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제품 등이 주요 상품이다. 편의점 근무 직원인 다니카(65)는 “병원 환자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 편의점을 많이 찾는 다”며 “아무래도 노인들을 위한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 노인층의 방문이 많다”고 말했다.

오사카(일본)=박미선 기자 only@

“소비 키워드 ‘시니어·건강’... 경쟁상대는 드러그스토어”

나카자와 미즈마루 日미니ストップ 해외사업 본부장

근접 출점 제한 대신 ‘최저수익보장제’ 안전장치 마련

“현재 일본과 한국 편의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쟁 환경입니다. 일본 편의점은 외식산업과 경쟁해 유리한 성과를 이끌어냈고, 이제는 ‘드러그스토어’와 경쟁 단계입니다. 반면 한국 편의점은 아직까지 외식산업과 경쟁 중이지요.”

나카자와 미즈마루 미니ストップ 해외사업 본부장은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이온그룹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카자와 본부장은 “일본 편의점 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담배와 술의 면허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나, 2008년 전후로 외식업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층이 시니어화하고 소비자 취향이 건강 지향으로 변화됐고 현재는 약국과 편의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일본 편의점의 2017년 가맹점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드러그스토어 업계는 매출 6조8504억 엔(약 70조 원)에 육박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카자와 본부장은 “흡연인구 감소도 방문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타 브랜드는 물론 동일 브랜드에 대한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 근접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최근 한국 자율규약을 설명하자 나카자와 본부장은 “기존 가맹점 보호를 위한 최대 효과로 보이지만, 업체 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대신 일본의 경우 출점 시부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요구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는 실정이다.

또, 한국과 달리 일본은 최저수익보장제라는 안전장치를 보편화했다. 가맹점의 판매수입이 10~12년 동안 한도보다 낮을 경우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카자와 본부장은 “경영주의 생활 보장이란 뜻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

익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미니ストップ의 경우 7년간 연 2100만 엔, 로손은 10년간 1860만 엔, 훼미리마트는 10년간 2000만 엔을 최저수익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러나 ‘스마트 편의점’에 대한 실험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이다. 로손은 시간대별 무인 계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셀프 결제를 부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니ストップ은 올해 안에 일본 내 2250개 매장에 ‘세미 셀프 계산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세미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는 건 미니ストップ이 처음이다. 세미 셀프 계산대는 점원이 상품 바코드를 읽고 고객이 계산대 화면에서 현금이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계산하는 동안 점원은 물건을 봉지에 넣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 1인당 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일반 계산대보다 20~30%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일본은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미니ストップ은 앞으로 패스트푸드 차별화 전략, 이온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바(일본)=이꽃들 기자 flowerslee@

중국 자동차 시장 부진에... 식어버린 성장 엔진

상장사 재무 분석

성우하이텍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성우하이텍의 성장 곡선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시장 다각화를 위해 추진한 해외투자 이후 생산 실적이 부진하면서 수익성 저하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수익성 악화는 투자를 위해 확대한 외부 차입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양상이다.

성우하이텍은 1981년 12월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로 국내와 중국, 인도,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멕시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생산거점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주고객인 만큼 매출 의존도는 60%에 육박한다. 현대차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지엠과 VW(폭스바겐), BMW 등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최근 13년 이래 연결기준 매출 추이를 보면 2년을 주기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2006년 매출 6698억 원에서 2년 만인 2008년 1조 1224억 원으로 1조 원 벽을 돌파했다. 이어 2010년에는 2조 823억 원의 매출을

2009년 영업이익률 10.42% 2017년 1%대 후반까지 추락 현대·기아차 생산 감소 '직격탄' 시설 투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올리머 2조 원 고지에 올랐고, 역시 2년이 지난 2012년 매출 3조 106억 원을 기록해 3조 원 벽을 넘었다. 이후에도 추세는 다소 약해졌지만 2016년까지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매출에 제동이 걸린 시점은 2017년이다. 주요 시장의 판매 부진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생산량 감소로 성우하이텍 역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중국 수출이 사드 여파에 2016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는 점이다. 성우하이텍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10.42% 이후 줄곧 우하향하면서 2014~2016년 매년 1%p가량 낮아졌고 2017년에는 1%대 후반까지 줄었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 역시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래



처의 납품단가 인하와 확장된 생산기반으로 인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상승, 2016년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공장과 중국 창주공장의 초기 가동비용, 시설 자금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영업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투자자금 소요 대부분을 충당했지만, 2015~16년 멕시코, 중국 등 신규 공장 설립과 주거래처의 신차 출시 대응에 따른 대규모 투자 영향으로 순차입금은 2014년 말 6460억 원에서 작년 3분기 1조1229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울러 신용평가업계는 이러한 재무

부담과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성우하이텍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차입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우하이텍은 차입금 대부분이 변동금리 조건이어서 이자율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손익 증감 효과가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매출과 이익기여도가 높은 중국법인들의 실적 저하는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GM, BMW 등 비현대차그룹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국 및 독일 법인의 수익구조도 취약해 현대차그룹 부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 여력 약화로 추가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점도 단기간에 영업실적과 재무안정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집계 중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좋지 않아 2017년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 악화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실적은 2018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쪽이 좋아져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입금은 일단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일부 계열사 1000억대 내부거래 여전 '대명코퍼레이션' 매출 60% 이상 차지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대명그룹

리조트·호텔, 골프·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종합 레저 전문기업인 대명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여전히 1000억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룹의 지주사인 대명홀딩스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양상이다.

1979년 경북 포항에서 대명주택으로 출범한 대명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명리조트를 주축으로 한 리조트업계의 강자다. 현재는 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골프장, 건설, 여행, 워딩사업까지 사업군을 넓혔다.

대명그룹은 지주회사인 대명홀딩스를 중심으로 대명코퍼레이션, 대명레저산업, 대명건설 등을 수직 지배하고 있다. 대명홀딩스 지분은 박춘희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78.09%를 보유하고 있다.

대명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21.73%(92억 원 중 20억 원) △2015년 62.63%(182억 원 중 114억 원) △2016년 47.82%(207억 원 중 99억 원) △2017년 26.44%(605억 원 중 160억 원) 등 2015년 급증한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익(상표권 사용료)은 2015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대명홀딩스가 2017년 거둬들인 로열티 수익은 23억 원으로 전년(20억 원) 대비 15% 늘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를 담당하는 회사로, 2017년부터 부실 콘도를 인수해 리모델링한 뒤 다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MRO 사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92	182	207	605
내부거래	20	114	99	160
영업이익	-602	-65	-49	354
비율(%)	21.73	62.63	47.82	26.44
로열티수익	16	16	20	2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1790	1975	2095	2355
내부거래	946	1161	1301	1477
영업이익	72	8	30	78
비율(%)	52.84	58.78	62.10	62.7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1847	2969	3371	3252
*내부거래	772	1785	1727	931
영업이익	-68	128	99	78
비율(%)	41.79	60.12	53.23	28.62

공정위 지적받은 MRO 담당사 '코퍼레이션' 내부거래 1477억 '건설' 계열사 공사 1000억 육박 지주사인 '홀딩스'는 감소 추세

은 특성상 내부거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MRO가 대기업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대명코퍼레이션은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 금액을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52.84%(1790억 원 중 946억 원) △2015년 58.78%(1975억 원 중 1161억 원) △2016년 62.10%(2095억 원 중 1301억 원) △2017년 62.71%(2355억 원 중 1477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내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대명레저산업이 8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명건설이 579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회사는 대명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중 94.85%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명건설도 내부거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계열사를 통한 공사 수익은 1000억 원대를 웃돈다. 대명건설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4년 41.79%(1847억 원 중 772억 원) △2015년 60.12%(2969억 원 중 1785억 원) △2016년 53.23%(3371억 원 중 1727억 원) △2017년 28.62%(3252억 원 중 931억 원)다.

대명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명코퍼레이션도 외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국증권금융 시장〉

정완규 "증권사 대출 늘려 시장 지원 강화"

"펀드온라인코리아 혁신 개편, 패러다임 전환 선도"

"올해는 증권금융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자본시장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펀드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

정완규(사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영원칙과 올해 중점 사업 추진 방안을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아 증권사들의 지원 기능이 강화돼 약 15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영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아직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안 좋으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증권금융의 경영 계획으로 △자금과 증권의 증시 공급 및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혁신적 개편 △내실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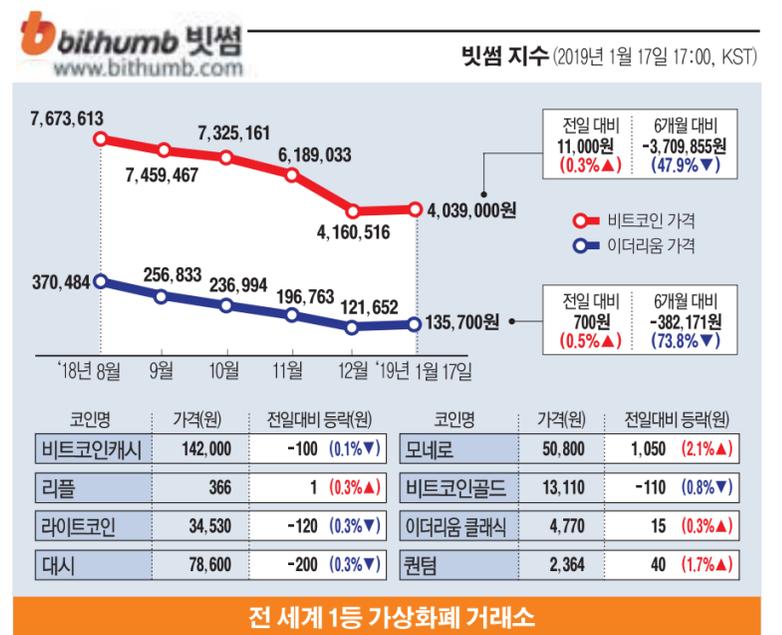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국내외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등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증시 안정화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

대한 대출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약 8700억 원을 확대한다. 또 증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할인어음, 일종자금거래 등을 통한 단기자금 지원을 지속하며, 기업물 RP거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 사장은 지난해 인수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혁신적 개편을 강조했다. 우선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UI(사용자환경), UX(사용자경험)를 새롭게 개편한다. 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상품 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수소연료 ‘AEM 수전해 기술’ 시장성 기대”

CEO 인터뷰

김호석 아크로랩스 대표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연료전지 엔시트론 손잡고 사업 본격화 AEM 수전해로 ESS 활용 가능 모듈화로 시장창출 전망 밝아



김호석 아크로랩스 대표

엔시트론이 올해부터 아크로랩스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수소 연료 전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엔시트론은 친환경 융복합전지 전문기업 아크로랩스와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아크로랩스는 친환경 융복합전지 원천 기술인 음이온교환막(AEM) 및자가가습형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스택 기술, 친환경 융복합전지 통합 운영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원전성의 관련 특허를 6

개 보유하고 있다.

김호석 대표는 17일 여의도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당사는 세계 최고 성능의 AEM 수전해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개발했다”며 “수소 연료의 자체생산,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활

성화는 연료인 수소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야 한다”며 “에너지가격이 적절한 수소 생산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수전해방식을 대규모 수소 공급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꼽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수전해방식은 △알칼라인 수전해 △양이온 교환막(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 음이온교환막(AEM; Ani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정도로 나뉜다.

김호석 대표는 “AEM 수전해는 (PEM 방식처럼) 고가의 귀금속(Pt 등)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기가 없어도 고압(≥30bar)으로 수소를 생산·저장할 수 있다”며 “대량생산 시기가 가까워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EM수전해를 적용한 친환경 융복합전지는 건물 등 비상 발전기나 데이터센터, 통신기지국 백업 전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AEM 수전해 방식의 사업성과 저렴한 야간 시간대의 전기료에 주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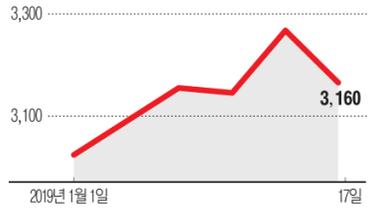
고 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계통 전원의 경부하 시간대 전력이나 신재생에너지원의 잉여전력을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음이온교환막(AEM; Ani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스택이다. 또 수소저장용기, 고분자전해질형 수소 연료전지스택, 각종 BOP(balance of plants), 컨버터 및 통합제어기 등도 주요 개발품이다. 아크로랩스의 개발품이 모이면 친환경 융복합전지가 된다.

김호석 대표는 “당사 제품은 소형화(compact)가 가능하며 건물 비상발전기, 데이터센터 및 통신기지국의 백업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듈화를 통한 대용량화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로도 시장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크로랩스는 앞으로 AEM 수전해 방식의 수소발생장치, 친환경 융복합전지 등 납품을 통해 2020년 150억 원, 2021년 350억 원, 2022년 700억 원, 2023년 1200억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미래생명자원 추가 추이 (단위: 원)



미래생명자원 동물 건강기능식품 ‘퓨어밀’ 온라인 판매

미래생명자원이 신사업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에 나선다.

회사 고위관계자는 17일 “상반기까지 자체 브랜드 ‘퓨어밀’의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약 4곳의 대형업체들과 맞춤형 ODM(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으로만 제품을 공급 중인데 앞으로는 B2B와 B2C를 병행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까지는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회사의 미래먹거리인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회사가 자체 연구·개발한 가바(GABA)나 가공 유산균 등 신소재를 토대로 한다. 최근에는 공장인 인천 2공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도 받았다.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안전성을 높여 품질에서 차별화했다.

국내사업 확장이 초점이지만 국외로도 사업을 뻗어나갈 방침이다. 가깝게는 태국 방콕에서 3월 열릴 예정인 아시아 최대 축산박람회인 VIV ASIA 2019에서 기존 가축 전용 기능성 프리믹스 사료 제품 외에도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작년 전체 매출의 경우 2017년(409억 원) 대비 소폭 낮아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주력사업인 프리믹스 부문 성과로 이익은 예년 수준(15억 원)을 유지해 영업이익률은 견조할 것이라 전망된다.

차명연 기자 blooming@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임상2상 중간결과 임박”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엔지켐생명과학

글로벌 제약사 기술이전 협의 구강점막염 신약 임상 2상 중

엔지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신약 EC-18의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우선 3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2상 중간결과 발표

표를 앞두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다. 이른바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이었다. 동시에 진행되는 ‘바이오테크 쇼케이스’에 발표기업으로 참석해 EC-18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EC-18 개발 중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진행은?

“현재 EC-18를 이용해 혈관에서 호중구의 유출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치료제

를 개발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아래 미국, 한국에서 임상시험 2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말 미국암학회(AACR)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나와야 가능한 부분이다.”

-구강점막염 치료제 개발 상황은?

“항암치료 시 발생하는 구강점막염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임상시험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시판 허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추가 추이 (단위: 원)



-급성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개발은? “현재 임상 2상 승인을 앞두고 FDA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류 대상으로 진행한다. 희귀질환치료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2상을 마치면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실험이기에 임상시험만 승인되면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ljh@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지만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

1

깊은 잠을 무는 15가지 방법

2

생체리듬을 깨우는 4가지 방법

3

수면 위험정보 기본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수면 전문의가 제안하는 아침에 생체리듬을 깨우는 비결에 귀 기울이세요!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호

도시관리계획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9. 1.19. ~ 2019. 2. 1.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02-2133-6298)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랑구 상봉동 신원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09-34, 35, 36, 37, 38, 39, 40, 41	-	증) 907.0	907.0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07.0	-	90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07.0	감) 907.0	-	-	
준주거지역	-	증) 907.0	907.0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그 외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고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건설업계 '오너 2·3세 경영' 박차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체제 주목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으로 승진
호반 김대현 부사장 최대주주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대형 건설사 중 드물게 오너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대림산업이 최근 3대 경영 체제에 들어서며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14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해욱 회장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자인 고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이해욱 회장은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대리리 입사해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9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다.

대림은 이 회장의 취임으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사업 분야의 발전과 주택사업의 독보적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도 서울숲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세계 최장형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를 디벨로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사업 분야에서는 태국 PTT 글로벌 케미칼과 함께 미국에 대규

모 석유화학단지를 디벨로퍼 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GS건설도 오너일가의 세대교체로 책임 경영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임원인사에서 GS그룹은 허윤홍 전무를 GS건설 부사장(신사업추진실장)으로 승진시켰다. 허 부사장은 GS가 4세로, 허창수 GS그룹 회장 장남(외아들)이다.

허 부사장은 현장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유원으로 3개월간 일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 부사장은 GS건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과 스마트 사업 투자개발형 사업 등을 이끌 전망이다.

지난해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호반건설도 오너인 김상열 회장의 2세 경영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호반과 흡수합병을 마무리한 호반건설은 사실상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장남 김대현 부사장이 지분 54.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 부사장은 2011년 6월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에 입사했고, 이후 2013년 10월에 사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지 불과 5년여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섰다.

또한 김 회장의 장녀인 윤혜 씨는 호반건설의 쇼핑몰 브랜드인 '아브뉴프랑'의 마케팅실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 호반베르디움의 지분을 30.97%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막내인 민성 씨는 아직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산업의 최대주주이자 호반베르디움의 지분도 20.65% 가지면서 2세대들이 각각 다른 계열사를 향후 맡아 경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을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험장' 세계 첫 조성

'무인 버스' 6월 시범운영

서울시가 6월 상암 DMC에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 완료한다. 이르면 6월 중 5G 자율주행버스의 시범운영도 시작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을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테스트베드에는 모든 자율주행 운행정황을 실시간 관제·평가할 수 있는 'CCTV 관제 플랫폼'이 구축된다.

래 정기적으로 도로를 통제해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서울교통의 원년으로 삼아 커넥티드카, 5G 융합 교통서비스 등 미래교통 분야를 선도하고 교통안전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일대를 '자율주행·5G 특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고 정부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명실상부 '자율주행 특화단지'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국토부, SKT와 최첨단 인프라 구축·개방
전기차 충전소 등 쉼장비·편의시설 24시간 개방
내년부터 택시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범 적용도

외국산이 아닌 국내 기술로 구축한 5G, 차량통신기술(V2X) 장비,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이 설치·조성된다.

서울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해 관련 기술을 시험·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개관하고, 경찰의 협조아

리 실증에도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 등에서 자체 제작한 버스가 투입돼 주 3회 이상 운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택시 100대에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내 T맵을 통해 전방 교통 신호,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근처 버스 급정거 정보 등 8개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래 교통기술을 시연하고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6월 상암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서울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집값 내리니 분양가 낮춰야하나” 분양 앞둔 건설사 한숨만 짊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주째 하락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한숨이 짊어질 분위기다. 최근 집값 정체·하락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분양가를 예전과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해야 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A건설사는 3월 경기도 분당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물량을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상가 설계 문제로 시기가 늦춰졌다. 아파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투자자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상가 분양도 함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아파트 분양가다. 지난해 말 분양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3.3㎡ 평균 분양가를 2600만 원 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집값 정체·하락 분위기에 인해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

황에 놓인 것이다.

분당구에서도 실거래가가 소폭 하락한 아파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현동에 위치한 시범한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4.99㎡ 매매가가 지난해 9월 9억8000만 원에서 11월 9억 원으로 낮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0.10%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셋째 주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달 14일 기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0.09%를 기록했다. 10주 연속 하락세다.

한편, 부동산11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 계획은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7만2873가구가 준비 중이다. 서희희 기자 jhsseo@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쉬운 투자, 쉬운 수익. 티레이더. 티레이더 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 ~ 2019.03.05)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 ~ 2019.03.05)

“교통카드 수수료 이중으로 챙긴 비씨카드, 금융사에 341억 쥐야”

법원 “택시 정산수수료에 중계수수료도 포함, 분리해서 받으면 안돼”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161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은 비씨카드가 택시비 결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인 금융회사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는 “2007년 후발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거래사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며 2017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2006년 비씨카드와 회원사 모임인 ‘비씨카드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사인 중계수수료를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사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

반대로 비씨카드 측은 “운영위에서 거래 승인 중계수수료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지급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 안건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승인 중계수수료는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며 “운영위에서 승인 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택시 거래가 카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비씨카드도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한슬 기자 charmy@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재판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는 양근방(87)할아버지와 약속하고 있다. 뉴시스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정당

대법 “요금부과·산정방식 적법” 롯데물산 전액 납부 취지 결정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와 관련해 수십억 원의 도로점용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부과액 64억 원 중 8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2014년 11월 대상 부지인 신청동 29번지 일대 남쪽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롯데물산은 이에 송파구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11억4000만 원, 52억9000

만 원 등 총 64억3000만여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롯데물산 측은 “점용구간은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점용구간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 사용에 제공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54억5000만 원을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을 달리해 56억2000만 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며 부과된 64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효진 기자 js62@

“KT, 국회의원 등 99명 불법 후원”

경찰, 황창규 회장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지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지금 11억여 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20대 국회

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 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이처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이었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까지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6월 황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쪽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전폭적 정부 지원 있으면 반도체 뛰어넘는 성과 자신”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신년 기자회견담화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는 제약업계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업계는 제약산업이 미래 국책산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면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원의 국산 신약이 탄생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방배동에서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됐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제약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임을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래형 신산업 중 하나로 제약산업 지원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등 육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업계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은 8%대에 불과해 제약 선진국인 미국(37%)이나 일본(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약산업은 내수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그로 인해 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근절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정부 R&D 투자 지원 8% 불과 “국가적 산업 육성 의지 보여야 1400兆 글로벌 시장서 대폭발 6년 내 매출 1兆 국산신약 가능”

원 회장은 “제약산업이 지난 국부 창출 잠재력이 1400조 원 규모의 세계 제약시장에서 대폭발할 수 있도록 뇌관을 터뜨려 달라”고 정부에 거듭 주문하며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정도로 발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산 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가 21곳, 글로벌 제약사에 신약 개발 기술을 수출한 제약사가 49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도 물질부터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인 합성·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이 최소 57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17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원희목 협회장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될 경우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원 회장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하면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원의 국산 신약이 탄생하고 2030년에는 매출 10조 원대 국내 제약사가 출현

하며,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민·관 협치 실현을 위해 올해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획기적 성과 축진 △일자리 창출 역

량 극대화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민·관 공동출연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중심 병원과 바이오클러스터, 제약사를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에 비롯한 국산 신약·개량신약·우수 제네릭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정부간 채널(G2G)을 통한 수출 지원과 우호적인 현지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공동생동성시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1+3' 방식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1+3 방식은 공동생동 허용 품목을 원래 제조업체 1곳과 추가 3곳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생동 전면 금지 대신 축소 절차를 통해 제네릭 품목 난립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는 개선안이다.

원 회장은 “협회는 발사르탄 사태 이전부터 공동생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3 방식의 단계별 축소안을 내놴”면서 “공동생동을 폐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하더라도 중소제약사 등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안했으며, 식약처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 경쟁 뒤처져

중 베이징 동인당·日 쓰즈라 제약·대만 순천당 등 주도권 경쟁 속 국내 한의약 산업 걸음마...정부, 한약 산업 인프라 구축 움직임

한국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국, 일본, 대만 제약기업들에 밀리고 있다. 한의약 관련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관련 제약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대만 등은 1990년대부터 한약제제(알약, 캡슐, 가루약 등으로 제조) 정책도입 및 연구개발에 투자해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등장했다.

◇중국·일본·대만, 글로벌 전통의약시장 이끈다 = 중국은 3500년의 역사를 가진 '베이징 동인당'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우황청심환'의 제약사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의 800여개의 분점을 통해 40여개국에 수출하며 매년 10%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쓰즈라 제약'이 선두주자다. 쓰즈라는 119종의 생약, 한약 80개 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단독 세계 시장 점유율이

0.76%, 일본 한방제제 전체 매출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도 '순천당'이 있다. 현재 영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등에 진출해 있다.

◇한의약 산업 전문화 우리 현실 = 한약제제를 바탕으로 각국 제약사들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국내는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전문화 상황이다.

국내 한의약 연구개발기업(주외의외)의 운영회 대표는 “국내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학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화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향후 해외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한의약 제약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및 해외 진출에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숨통이 트인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중국 '베이징 동인당'.

있으며, 탕약표준조제시설과 한약 비임상 연구시설(GLP) 건축이 진행 중이다.

한의학계는 한약재 제약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가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이은경 대한한약학회 부회장은 “국내는 급여화되는 약이 55종의 한약제제로 한정돼 있고 시장규모도 300억원 수준”이라며 “중국·일본·대만 모두 보험 활성화에 힘입어 한약재제약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처럼 시장이 커져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겠다”

유한양행·한미약품·종근당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제약업계에 '윤리 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리베이트·공품·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모든 임직원에게 부패방지,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윤리경영과 뇌물수수 방지 등에 대한 실천 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 이행해야 한다. 인증 후 1년 내 사후 심사가 진행되며, 3년 후 갱신 심사도 받아야 한다.

2017년 11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ISO 37001 인증을 받은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유한양행과 GC녹십자, 일

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하반기 동아에스티, 종근당, 대웅제약, 안국약품 등이 속속 인증 소식을 알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업계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각 기업의 자정 노력으로 해석된다.

제약사들은 ISO 37001 인증 획득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종근당은 부서별로 부패 위험을 진단·평가하고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강도 높은 내부심사를 진행했다. 안국약품은 내·외부 부패리스크 진단 및 평가, 부패 방지 모니터링 등을 거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 10월 ISO 37001 도입을 결정하고, 총 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각 회원사 인증에 따른 영향력과 결과를 조사해 업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 뚜렷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건강한 픽템 함소아 프로폴리스



감기예방, 마스크·손씻기 그리고... '프로폴리스'

구강 면역력 높여 기관지 보호
비타민·무기질 성분도 풍부해

겨울철 실내의 온도차가 심해지는데다 극심한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겐 가장 주의가 필요한 요즘이다.

전문가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에는 손, 얼굴 등을 깨끗이 씻고 물을 많

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라틴어의 프로프(PROP, 기동)와 그리스어 폴리스(POLIS, 도시)의 합성어로 '벌들의 도시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라는 의미다. 꿀벌은 벌집의 틈이 난 곳에 프로폴리스를 발라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말벌이나 쥐 같은 적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는 항산화 작용의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으며, 구강 내 점막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구강 면역력을 높여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프로폴리스를 주원료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인 함소아제약의 '함소아프로폴리스'도

인간다.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영하의 기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며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소아 프로폴리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마누카꿀, 녹차추출농축액 등 보조원료의 배합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강 내 균균작용으로 건강(면역) 관리에 도움을 주며 청량감과 상쾌함으로 아이, 어른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함소아 프로폴리스는 함소아한의원, 함소아몰, 인터넷 소프몰(건강기능성 제품)에서 구매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올댓 트립 ② '황금돼지해' 맞아 떠나는 '豚 투어'

“찾으면 로또!”… 불국사에 숨은 ‘福돼지’ 잡아라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집마다 돼지를 길렀고, 돼지꿈은 길몽이라며 크게 반겼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돼지가 새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빨리는 사진을 걸어놓거나, 새해 첫 돼지날(上亥日)에 문을 열어놓는 등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돼지해를 맞아 행운과 재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돼지 투어'를 추천한다.

천년고찰 불국사 복돼지상

2007년 初 극락전 현판 뒤에서 250년간 감춰있던 돼지상 발견

'로또 당첨'이라는 말은 어느덧 행운에 닿길 바라는 마음이 깃든 고유어가 됐다. 뉘니 뉘니 해도 돼지 하면 복(福)돼지다. 2019년, '부'와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 황금 돼지의 기운이 가득한 체험지를 찾아 떠나보자. 두 번째 '돈(豚·돼지)투어' 주제는 '숨어 있는 황금 돼지를 찾아라'이다. 누가 아는가. 황금 돼지를 찾고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지.

◇ '곰빛 돼지상' 안 보면 불국사 갔다고 할 수 없지 = 경북 경주시 불국로에 위치한 불국사.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것이다.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면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부처님 나라가 펼쳐진다.

청운교와 백운교 옆 연화교와 칠보교에 오르면 대웅전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락전이 자리 잡았다. 극락전 앞에는 탑이 아니라 곰빛 돼지상이 있다. 그 아래 '극락전 복돼지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다. 천년 고찰에 복돼지상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사연이 있다.

2007년 초 극락전 현판 뒤에서 자그마한 돼지 조각이 우연히 발견됐다. 불국사가 처음 문을 연 통일신라 시대부터 천년이 넘고,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극락전이 다시 지어진 1750년부터 따져도 250년 넘게 숨어 있던 돼지 조각이 발견된 일은 화제를 모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복을 빌자, 불국사에서는 '극락전 복돼지'라는 공식 이름을 만들고, 기념 100일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현판 뒤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 복돼지를 누구나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극락전 앞에 자그마한 복돼지상까지 만들었다.

◇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줄서서 소원 비는 이들 =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불국사에는 극락전 복돼지를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



극락전 현판 뒤 숨어 있는 복돼지.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은 반드시 들러 사진을 찍는 코스가 됐다. 극락전 앞에는 깃발을 든 가이드의 설명에 가볍게 탄성을 지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돼지상을 바라보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복돼지상을 만지며 복을 비는 내국인도 줄을 잇는다. 2017년 로또 당첨자가 "불국사 극락전 앞 복돼지를 쓰다듬고 현판 뒤에 있는 진짜 복돼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빈 다음 극락전으로 들어가 108배를 올리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복돼지상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람은 극

내게도 로또 1등 기적이?

복돼지 만지고 아미타불에 108배 외국인 관광객도 줄 서는 필수코스

락전 현판 뒤에 숨은 돼지 조각을 찾아보기도 한다. 현판 뒤 기둥을 받치는 공포 위에 있는 돼지 조각은 뽀족한 어금니가 드러나 멧돼지처럼 보이는데, 자그마해 사투귀엽다. 보통 사찰의 공포 위에는 조각이 없거나, 있더라도 용이나 봉황 등을 새기기 때문에 돼지가 발견된 것은 희귀한 일이다.

◇ 복돼지 만지고 돼지 조각 봤다면, '끝판왕'은 아미타불 = 복돼지가 발견된 극락전은 서방의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는 '모든 것에 만족



극락전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아이들도 좋아하는 극락전 복돼지.



돌섬의 상징, 황금돼지.



배에서 내려 돌섬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

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있다.

극락전 복돼지 안내문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극락정토의 복돼지는 부와 귀의 상징인 동시에, 지혜로 그 부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만족한 삶은 풍요로운 의식주와 더불어 욕심의 끝을 알아 스스로 절제하라는 경계의 뜻도 있다.

복돼지상을 만지고 현판 뒤의 돼지 조각까지 봤다면 극락전에 들어가 아미타불도 뵙고 가시길. 아미타불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복을 빌며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가르침을 새겨두 좋을 듯하다.

극락전에 모셔진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호)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26호),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꼽힌다. 딱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잘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고 세련된 통일신라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석가삼존불의 좀 더 남성스러운 모습과 비교해도 재미있다.

◇ 이름부터 '돼지 섬' 돌섬... 그곳엔 '황금 돼지' 전설이 있어 = 경남 창원에 가면 돼지와 관련된 여행지 두 곳이 있다. 돌섬과 저도가 그곳이다. 돌섬은 마산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으로, 황금 돼지 전설이 있다. 스카이워크로 인기를 끄는 저도는 바다를 끼고 걷기 좋다.

창원시는 옛 마산과 진해, 창원이 합쳐

진대도시다. 마산합포구 앞바다에 돌섬이 두둥실 떠 있다. '돌'은 돼지의 옛말로, 돌섬은 말 그대로 돼지 섬이다. 마산항에서 배를 타고 바람을 맞다 보면, 10분 만에 돌섬에 도착한다.

입구에 '복을 드리는 황금 돼지섬 돌섬'이라는 환영 문구가 여행자를 맞는다. 섬에 들어서면 황금 돼지상이 눈길을 끈다. 배에서 내린 여행자는 황금 돼지를 어루만지며 사진 찍기 바쁘다.

경남 창원 '돼지섬'

신라시대 황금돼지 설화 간직 돌섬·저도, 관광명소로 재탄생

돌섬에는 전설이 있다.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미희 이야기다. 미희가 어느 날 작은 섬으로 숨어들었다. 신하들이 환궁을 요청하자 미희는 황금 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는데, 이후 황금 돼지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떠돈 것. 병사들이 금빛 돼지에 활을 쏘자,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섬이 돼지가 누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한다.

신라 때는 돌섬에서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나, 최치원이 섬을 향해 활을 쏘니 찾아들었다는 전설도 있다. 입구에 있는 황금 돼지상 뒤에 전설을 표현한 벽화가 보인다.

◇ 지역 주민의 안락처 된 돌섬 = 돌섬은 1982년 해상유원지로 탄생했다. 한때는 섬에 서커스장과 동물원, 놀이기구가 있었고, 섬에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대가 흐르면서 돌섬은 잊혀졌고, 잠시 문을 닫기도 했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다가 지금은 창원시에서 인수해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섬 입구에서 왼쪽으로 향하면 출렁다리가 나온다. 섬은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푸른 바다에 눈을 던지고 걷다 보면 월영대와 관련된 시비와 조각 작품이 하나둘 나타난다. 2012년 창원 조각비엔날레 때 설치된 것으로, 생명의 근원을 씨앗 모양으로 표현한 '생명-영(影)'을 비롯해 여러 작품이 섬을 빛낸다.

돌섬과 함께 돼지해에 가볼 만한 섬, 저도. 한자의 뜻 그대로 돼지 섬으로, 하늘에서 보면 돼지가 누운 형상이라 붙은 이름이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한 저도로 가는 길은 바다를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다. 길이 좁아 더 운치 있다.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가 눈에 들어온다. 저도는 돌섬과 달리 다리로 육지와 이어져 접근하기 편하다.

김소희 기자 ksh@

알아두는 여행 tip



창원서 맛보는 '예술 아귀찜'

경남 창원엔 예술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창동예술촌은 1950~1980년대 문화 예술의 중심이던 마산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문신 선생을 재조명하는 '문신예술골목', 마산의 옛 거리를 재현한 '마산예술흔적골목', 창작 공간과 상가를 혼합한 '예술드림동골목'으로 이뤄

졌다. 창원의 대표 문화 예술 거리로, 가축공예와 자수, 한지, 양초 등 다양한 공방도 자리한다.

창원 예술에 대해 논할 때 창원시립문신미술관을 빠뜨리면 안 된다. 대칭의미를 살린 추상 조각의 거장 문신의 작품과 예술 정신이 스며들었다. 1·2전시관과 야외조각전시장, 문신원형미술관으로

구성됐다. 석고 원형 116점과 유화 작가 유품 등 39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야외 바닥 타일도 작가가 디자인했다. 추산 언덕에 자리해 마산항과 돌섬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생생한 창원을 느끼고 싶다면 마산어시장으로 향하자. 1760년 조창이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산어시장은 2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대규모 수산물 시장으로, 고등어와 명태는 물론 다양한 선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어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산 아귀찜 거리와 복요리 거리, 장어구이 거리도 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6 음식 테마 거리'에 빛나는 마산 아귀찜 거리는 꼭 들러야 할 코스다.

아귀찜은 1960년대 초 마산 시내 오동동에서 갯장어 식당을 하던 흑부리 할머니가 시작한 요리다. 아귀에 된장과 고추장, 콩나물 등을 섞어 찌는데, 매콤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김소희 기자 ksh@

제3회 송음건강마라톤대회는
동성제약 창업자 이선규 회장의 호인 송음의 정신을
계승하여 열리는 건강마라톤대회입니다.



**SONGEUM
HEALTH
MARATHON**

도봉구와 동성제약이 함께하는

제3회 도봉송음마라톤대회



2019.04.07 (일)
다락원체육공원



대 회 명 : 제3회 도봉송음마라톤대회
대회일시 : 2019.04.07.(일) 08:00~12:00
대회장소 : 다락원체육공원
대회부문 : 하프, 10km, 5km, 5km 가족걷기
대회시상 : 정규시상 : 각 부문 남녀 1~5위(건타임)
이벤트시상 : 각 부문 남녀 6~30위(넷타임)
참가인원 : 3,000명(선착순 접수)
주 최 : 동성제약(주)
주 관 : 아람비
후 원 :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참가신청 : www.songeum.com
문 의 : 송음건강마라톤 운영사무국 031.821.9940

* ————— 기념품 및 경품 ————— *

경품 : 3월 중순 홈페이지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기념품

10만원 상당
오마샤리프 포맨 세트(남)

10만원 상당
오마샤리프 여성 세트(여)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기념품 및 경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말는 지점마다 반드시 성공 이끄는 '오정구 매직'

삼성화재 첫 고졸 여성 임원 오른 오정구 송파지역단장

“대나무 아닌 고무줄 리더십”으로 동행 프로젝트·정보 미팅 RC들과 소통 신뢰 쌓아...남보다 먼저 하루 시작, 실적 연결

“지점총무를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출근해 지점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1등으로 도착하면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곤 했죠.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니 업무 효율도 높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오정구(사진) 삼성화재 송파지역단장은 가는 곳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신뢰를 쌓은 비결에 대해 ‘남보다 먼저 하루를 준비하는 습관’과 ‘소통’을 꼽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서울 송파지역단장인 오정구 단장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개인영업본부 산하 두 번째 여성 관리직이자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다.

1987년 삼성화재 전신 안국화재에 입사한 그는 2003년 총정사업부 단산제일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첫 번째 성공을 맞았다. 지점 보험설계사(RC) 40명이 합심해

한 달간 4000만 원 규모의 ‘슈퍼보험’을 판매한 것. 초반 오정구 단장과 RC들은 소통 문제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 단장은 “대나무가 아닌 고무줄 같은 지점장”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RC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RC들에게 맞춤형 정보 미팅과 교육을 제공해 힘을 보탤다. 그러자 불신이 신뢰로 바뀌고 지점에는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돌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오정구 단장은 2009년 개봉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성공 스토리를 이어갔다. 당시 개봉지점 RC들은 장기 평균 계약률이 평균 40%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RC들과 함께 발로 뛰며 계약자를 만나는 동행영업 ‘RC 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약 2년을 함께 발로 뛰는 끝에 실적이 개선됐고,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삼성화재 분기인물상을 수상했다.

2012년 12월 서초지역단 총신대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오 단장은 ‘정보미팅’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자료를 정리해 RC들의 이해를 높였다”며 “지점 근처에 사는 RC들을 주축으로 저녁 모임을 갖고 그날 있었던 영업활동을 공유하며 힘든 점을 토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RC들의 소득이 올라갔고 그 모습을 보는 나 역시 뿌듯했다”고 밝혔다.

말은 지점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는

‘오정구 매직’은 또 한번 빛을 받았다. 오정구 지역단장은 2015년 성남지역단 분당 지점으로 발령받았다. 조직개편으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한 곳이었다. 오 단장은 “매주 수요일 RC를 대상으로 ‘수요특강’을 진행했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본사와 사업부에 적극 도움을 요청했다”며 “교육에 참석한 RC들로부터 ‘남다른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자부심이 커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특강에서 배운 걸 실천에서 활용하니 자연스럽게 성과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지점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2017년 상반기 분당지점은 보장 신계약 130.9%로 사업부 1위를 차지했고 도입 역시 133.3%를 달성했다.

오 단장은 지금도 RC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그는 “유난히 춥거나 눈이 오는 날은 아침 일찍 지점을 돌며 이른 시간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RC들에게 커피 쿠폰과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남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커피 쿠폰을 나눠 주며 애로 사항을 듣고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코트라 부사장에 김종춘 본부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엔 김상묵



대한 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17일 김종춘 경제통상협력 본부장(왼쪽 사진)을 부사장 겸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부사장은 1988년 코트라에 입사해 워싱턴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겸 뉴욕 무역관장, 주력산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부사장은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지역연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후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으론 김상묵(오른쪽 사진) 서비스산업실장이 임명됐다. 김 본부장은 브랜드·기술사업처장, 팔라뮈르무역관장, 글로벌파트너링실장 등을 지냈다.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서울종합과학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화학공학회 50대 회장 취임

전해상(사진)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이 한국화학공학회 제50대 회장으로 취임, 학회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이끈다.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 1년이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 화학공학계의 학술 수준 향상과 산학협력 활동 및 교류를 장려하고 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약 8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 공학 분야의 최고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김종석 기상청장 “정확한 기상정보로 국민신뢰 회복”

“정확한 기상정보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김종석(사진) 기상청장은 17일 기상청 다울관에서 ‘2019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다. 김종석 청장은 “기본부터 돌아보며 국민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이어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위험기상정보를 집중 강화한다. 태풍의 경우 △강풍이 실제로 나타나는 영역 △태풍 위험 영역 △

최근접거리 △이동 속도 △강도 변화 경향 등 부가정보를 추가 제공하며 태풍예상 진로를 종전 24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폭염 위험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산업 분야별로 제공하는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도 6월 시행한다.

기상예보 서비스도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해상안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객선 항만을 중심으로 안개 관측망을 확대하고 천리안위성 2A호 영상을 활용한 안개 산출 기술을 개발한다. 고속도로 CCTV 영상과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한 고속도로 실시간 위험기상서비스를 확대



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이착륙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항별 저시정 정보와 급변풍(윈드시어)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아울러 지진정보를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기반으로 지진 진동 도달 예측시간, 지진 동 크기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이대서울병원장 초대원장 편육범 순환기내과 교수 임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초대이대서울병원장에 편육범(사진) 순환기내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2월 서울 마곡지구 에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의 초대 원장을 맡게 된 편육범 교수는 1990년 연세대의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이대동명병원 응급진료부장, 심장혈관센터장, 심혈관계 순환자실장 등을 맡아 환자를 돌보았다.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조도상 신경외과 교수가 선임됐다. 조 교수는 1994년 고려대의대를 졸업하고 2003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이화의료원 전산실장을 맡아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LG화학, 사업장 주변 중학생 초청 ‘화학캠프’

LG화학이 화학캠프를 통해 새해 첫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LG화학은 기아대책과 함께 16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여수, 대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400여 명의 중학생들을 초청해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캠프는 청소년들이 화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미래 과학 인재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약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16일 시작된 새해 첫 캠프는 영등포, 마곡, 파주 등 수도권 사업장 인근 중학생 100여 명을 서울 올림픽파크텔로 초청해 2박 3일간 진행 중이다. 이번 화학캠프는 ‘화학과 놀고, 화학을 꿈꾸자’를 주제로 창의융합탐구, 기초과학탐구, 화학직업탐구 등 새롭게 개편된 다양한 화학실험 및 특강 등이 진행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LG화학이 주요 사업장 인근의 중학생들을 초청해 열고 있는 ‘2019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태양광 충전 캠프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대한미생물학회장에 김정목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정목(60·사진) 교수가 사단법인 대한미생물학회 제51대 회장 및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윤순희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정영주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청장실 비서관 이기현 △소방물기화과장 이형식

◆국립공원공단 <본부장급 전보> △혁신지원본부장 김종완 △지리산국립공원본부장 나공주 <본사 차·실장급 전보> △행정처장 김두한 △시설처장 이재원 △홍보실장 손영임 △상생협력실장 허영범 <1급 승진 및 전보> △탐방복지처장 문명근 △재난안전처장 양해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영업본부장 오지현

◆한국재정정보원 <본부장> △e나라도움운영본부 유근필 △정보보호본부 김태규 <부

장>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오재호 △dBrain운영본부 dBrain기획부 노승두 △dBrain운영본부 시스템운영1부 김명자 △dBrain운영본부 시스템운영2부 이재정 △dBrain운영본부 시스템운영3부 우광일 △e나라도움운영본부 국고보조금관리부 윤장원 △e나라도움운영본부 e나라도움지원부 김영수 △정보보호본부 정보보안기획부장현철 △정보보호본부 보안시스템운영부 유달영 △정보보호본부 재정경제사이버안전센터 홍학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정보활용부 남상욱

◆달라이브 <상무> △가입자서비스부문장 임해동 △경영지원부 경영관리실장 손민수 <이사> △가입자서비스부문 경동 디지털OTT방송지시장 한성욱 △기술지원본부장 강대일 <총괄> △미디어서비스본부 채널전략팀장 전명은 △CR본부 광고 영업국장 정준호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 뱅가드 설립자 별세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해 ‘월가의 성인’으로 불렸던 존 보글 뱅가드 그룹 설립자가 16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마켓워치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날 ‘인덱스펀드의 아버지’, ‘세계 4대 투자 거장’ 등으로 불리던 보글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버포드에 있는 자택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글은 1975년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기관인 뱅가드를 세운 후 1996년까지 약 20년간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금융투자

회사에서 주식 추천·중개를 받지만 수익은 내지 못하는 현실을 고민하다 저비용의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시장에 내놨다.

팀 버클리 뱅가드 최고경영자(CEO)는 “보글은 투자 산업의 역사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뱅가드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자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보글은 뱅가드 CEO직을 사임한 후 1999년 보글금융시장연구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강연과 저술활동을 계속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6명, 손자 12명, 증손자 6명 등이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부음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씨 별세, 이현주 씨 남편상, 최의연·호연 씨 부친상 = 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일 오전 7시, 02-3410-6917

▲최춘화 씨 별세, 장윤종(포스코경영연구원장)·태종·영희·영숙 씨 모친상, 김일선 씨 장모상 = 17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3010-2263

▲백옥순 씨 별세, 김정열(자영업)·복만(금융감독원 부국장겸사역)·봉애(대방교회 권사)·순애(전 KT&G 보성지점장) 씨 모친상, 김석중(자영업) 씨 장모상 = 16일, 광주 남문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62-675-5000

대방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 (1) -기초교양교육의 엇박자

대가(大家)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신입생들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좁고 깊은 부분을 다루는 강의는 오히려 박사학위를 갖 취득한 신진 학자가 해도 무방하다. 세미나 수업이나 소규모 심층강의는 그 편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자고 온다는 아들 녀석 전화를 받고 모처럼 아이 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낱술 시험 준비하느라 지우개 가루로 어수선했던 책상은 비교적 깨끗이 치워져 있고 그 위에 철학 서적 몇 권이 놓여 있다. 앞쪽 몇 장에 집중적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1980년대 팔꿈치 부분을 가죽으로 덧댄 코르텐 재킷은 검정색 교복을 막 벗은 대학 신입생의 교복이나 다름없었다. 그 교복을 입고 고전읽기 서클(동아리)에 찾아간 적이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는 불온한 선배들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입생의 동아리 가입을 대학이 금하던 시절이었다.

쪽지에 그린 약도를 보고 물어 물어 찾아간 달동네, 담배 연기 자욱한 두세 평 남짓한 방을 빼곡 메운 대학생들은 일본어로 된 경제학 책을 독학하고 있었다. 그때는 합창반이나 법철학회도 모두 같은 책을 읽었다.

사법시험을 본격 준비하기 전 철학, 고

전, 교양을 맛보고 싶었던 신입생의 원래 계획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난 채 법전에 빨려 들어갔다. 3년간의 군법무관 시절, 비교적 한가했던 기간, 주말에 서울에 올 때면 매주 한 권씩 독파하리라는 계획으로 교보문고에 들렀으나 한 주 한 권 구매로만 끝나고 말았다.

서른 넘어 뒤늦게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수학박사로서 법학을 전공한 박사지도 교수는 자기와 함께 공부하려면 다섯 편의 논문을 읽고 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칸트, 헤겔, 로크, 벤담 등의 철학을 법학에 접목시킨 것들이었다. 대체 이런 철학이 저작권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대학 4년 동안 우리말로 된 책을 읽으면서도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외국어로 쓴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여러

서클을 기웃거리다 천편일률에 질리고 두 번의 수강 신청과 철회가 말해주듯 법철학 강의에 대한 실망감은 철학 공부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제때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은 오랜 상흔으로 남듯, 철학은 내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다.

네이버 문화재단이 2014년부터 6년째 진행하고 있는 '열린 연단: 문화의 안과 밖' 강좌 시리즈는 철학, 문학, 과학 등 고전과 현대 사상에 대해 매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강의 영상과 원고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공개 강좌는 기업의 모범적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입소문을 타 꽤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

산책 중에 이어폰으로 강좌를 듣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잠시 멈춰 메모하느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린 때도 있다. 청강으로 얻은 지식을 계기로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기도 해 강의의 유용성을 절감한다.

이처럼 공부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걸 대학 때 배웠더라면

...' 하는 회한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내가 그랬듯 지금 대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기초교양교육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대가(大家)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신입생들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좁고 깊은 부분을 다루는 강의는 오히려 박사학위를 갖 취득한 신진 학자가 해도 무방하다. 세미나 수업이나 소규모 심층강의는 그 편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놀아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에게 돈 버느라 바쁜 아빠는 "다음에"라는 말로 외면한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아버지가 이제 좀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려 하지만 닫힌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건 자녀의 "됐어요"라는 말뿐이다.

철학이나 교양에 관한 대학 교육의 현실이 이런 가정의 엇박자와 무엇이 다를까 싶다.

CEO 칼럼



민경선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1월은 한 해의 시작이다. 사람은 새해 무엇을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자!'라며 생각을 마치고 시작한다.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금연에 대한 결심이 화두는 아닌 것 같지만 아직 담배를 피우는 필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심이 된다. 마치 평생을 다시는 피우지 않을 것처럼 거창한 고민을 하다가 금연하지만 1월 고민과 다짐, 실패가 공존하면서 허송세월의 첫 달로 마무리된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늘 그렇듯이 2월에는 설날이 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양력과 음력, 이렇게 두 번의 1월 1일은 고마운 일이다. 한 번 실패를 맛봤으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전략 또한 좀 더 구체적이다. 기왕에 새 결심을 했으니 이번이라도 금연하길 바라지만 지난 1월 한 달이 허무하기만 하다. 그나마 "왜, 0월이 없는 거지?" 12월을 마치고 1월이 오기 전에 새로운 한 해가 태어나듯

숫자의 시작점은 1이 아니라 0

0월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진득하니 고민의 시간과 준비를 해뒀을 텐데 바로 실천에 돌입하듯 1월이 오니 마음도 바쁘고 정신도 없는 듯하다.

숫자의 시작을 0과 1중 무엇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어른들은 1부터 10까지 세는 버릇이 일반적이다.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0부터 숫자를 센다. 아마도 요즘 유치원에서는 0부터 9까지라고 가르치는 모양이다. 숫자의 시작이 0부터인 것은 이치로 보아 맞다. 온전한 1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요소로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에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보면 '0층'이 존재한다. 우리가 로비라고 말하는 'Ground Floor'를 0층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를 당연히 '1층'이라고 부른다. 시ết말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의 결정판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살. 그 후 12월 31일을 넘기면 두 살이 된다. 법적 나이는 만 나이이지만 "몇 살이야?"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두 살!"이라고 손가락 두 개를 펼치는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최근에 한국회의원이 공식적인 나이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니 숫자의 시작은 0이라고 봐야 한다.

0의 부재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예는 역사에도 존재한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리키는 기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쯤은 상식이지만 이 명명의 창시자인 로마의 수도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서기 시작 연도를 0부터가 아닌 서기 1년으로 명명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21세기라고 명명되는 기간의 시작 연도도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이 된다. 따라서 숫자의 시작은 0이 맞다.

왜 우리만 유독 로비 층을 1층이라고 부를까. 0이 없고 1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짜 심리의 발현 같기도 하면서, "빨리 빨리" 서두르는 문화도 0을 건너뛰고 1부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싶다. 좋게 본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긍정적 마인드로 0 없이 1부터 시작했기에 잘

밀어붙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0 없이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막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모양새이기에 실수도 실패도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늘 1월은 어수선하다.

0이 없어서 바쁘게 사는 것인지, 바빠서 0이라는 단계를 생략하는 것인지 그 이치는 모르겠다. 다만 0이 있음으로써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0부터 9까지의 순서 정립을 시작해야 0이라는 단계에 소홀하지 않고 더 많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삶도 세상도 실패의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가지되 느릿하지는 않으며 고민의 8할을 0단계에 쏟아부어야 0의 존재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달력은 뜬금없이 '0월'이 보너스처럼 생겨났으면 좋겠다. 허황될지언정 1월은 우리에게 있어 0월인 셈이다. 아직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0월의 활용을 고민해보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 김할란 유언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싫다. 친척, 친구들이 원한다면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나를 환송해 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기 바란다."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 친일파 여성계 지도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며, 독신생활로 생을 마쳤다. 그의 유언에 따라 한국 최초로 음악회로 장례식을 대신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99-1970.

☆ 고사성어 / 여위부과(如蝸負瓜) 고슴도치가 제 가시에 오이를 짊어진 것 같다는 뜻. 이곳저곳에 남에게 진 빚이 많다는 의미의 속담에서 비롯됐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남에게 빚이 많거나, 만아들이 부모형제를 때문에 짐이 무겁다는 의미로 쓰인다.

☆ 시사상식 / OEM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 원문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 위탁생산'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생산'이라고 한다.

☆ 신조어 / 올인빌 'All in village'. 집 근처 동네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 주상복합 건물이 늘면서 5-10분이면 생필품, 음식 등을 해결하게 돼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 유머 / 뛰어난 상상력 초등학교 2학년 미술시간. 선생님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목장 풍경을 그리라고 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백지를 냈다. 돌의 대화.

"풀은 어디에 그렸니?" "소가 말끔하게 먹어치웠죠." "그럼 소는?" "풀 다 먹었는데 소가 남아 있겠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금융감독원이 내건 설립목적이다. 금감원은 설립목적 그대로 대한민국 금융회사를 감독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의 감독은 금융사를 향한 채찍질인 셈이다.

금감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사가 잘한 일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금감원은 몇몇 카드사를 상대로 경영 유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언뜻 읽어보면 이들 카드사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한 카드사에 물어보니 반전이 있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분야는 재작년보다 오히려 등급이 올랐다"며 "일부 개선사항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점'이 아니다 보니 경영 유의 조치

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작년 금감원 지적을 받고 개선 노력을 거쳐 실제로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닌 경영 유의 조치였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아닌 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 금융사에 '당근'을 쥐여준 것이라 여길 수 있다. 하지

기자수첩



정용욱 금융부/dragon@

금융감독원의 채찍과 당근

만, 권위주의의 시대는 지났다. 모든 금융사를 금감원 한 곳에서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금융사를 감시하는 '감시자'에서 벗어나 함께 호흡하는 '리더'로 변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어느 베스트셀러의 제목처럼 금감원도 채찍 대신 당근을 들 때다. 범고래는 다른 고래를 사냥할 정도로 사납고 크기는 최대 10m, 몸무게는 10톤까지 자라는 포식자다. 하지만, 범고래 조련사는 범고래가 좋은 행동을 하면 칭찬하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쌓는다. 2m 남짓한 조련사가 10m짜리 맹수를 공중제비 넘도록 하는 비결이다. 금감원이 노련한 조련법을 익혀야 할 때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이슈&인물

개설 4년 맞은 탄소배출권 시장

신민희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팀장

“시장 메커니즘 활용 온실가스 감축 유도”

삼천리 금수강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서울의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덥고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춥다. 사계절 내내 하늘을 뒤덮는 뿌연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더 적다. 이상현상의 주요 원인, 그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한국거래소에서 신민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배출권시장팀장을 만났다. 신민희 팀장은 “더 나은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한국거래소는 정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정부가 기업들에 할당하는 제도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쓰레기봉투를 생각하면 쉽다. 100리터 전용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다 담을 수 없는 기업은 봉투를 하나 더 사야 한다. 반면 90리터만 사용한 기업은 돈을 받고 다른 기업의 쓰레기를 담아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배출권 거래는 남은 10리터를 시장에 팔려 거래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민희 팀장은 “온실가스라는 환경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규제 수단으로만 인식됐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배출권시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비용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정이다. 한국도 2016년 97번째 파리협정 비준 국가가 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37%(약 3억1000만톤) 감축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시장에 참여한 회원사는 600개사 남짓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등 규모가 큰 유가증권 상장사가 많은 편이다. 파리협정 참여국들은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목표치(국가할당량)를 제출하고, 제출한 목표치를 바탕으로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는 “모든 기업이 할당량만큼만 배출하면 사고팔 필요가 없었지만, 개별 기업별로 배출량 저감 노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보유 배출권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은 효율적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2기에



신민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배출권시장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한국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규제로만 인식하던 환경정책 투자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
기업들이 저감기술 개발 나서 비용 줄이는 선순환 구조 바람직
배출권 시장 안정적 정착되면 개인·외국인·금투업계에 개방 거래 부진해 가격 높다는 지적... 저감 노력 유도 목적에 맞기도

입해 있는 상태. 1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착을 위한 배출권시장이 개설됐다. 2기는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를 목표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행될 3기에서는 배출권 파생상품시장 개설 및 개인투자자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배출권시장이 2005년에 도입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상품회사, 트레이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도 활발하다. 미국과 중국, 뉴질랜드도 우리보다 앞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신 팀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정착되면 제출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외국인, 금융투자업자 등 제3자 시장참여가 허용될 것”이라며 “그러나 안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한다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이후 활성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주식하고는 거래 방식이 다르다. 주식은 기업이 상장해 종목이 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배출권은 상장돼 있는 KAU18, 19, 20(할당배출권), KCU(상쇄배출권), KOC(외부사업감축량) 등 5개 종목에 대해 600개 회원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부족 수량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과부족 기업들이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 제시한 매도 및 매수 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KOC는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제거한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 등을 통해 배출량 저감을 인증받으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 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에 대해 신 팀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칙”이라며 “다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인위적인 가격조작 행위 등에 대해 거래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거래량은 2월부터 6월 초까지가 가장 많다. 연초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정부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거나 부족한 온실가스를 팔거나 사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 마감 직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배출권시장은 일정부분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126개사가 참여한 배출권시장협의회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탄소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해 할당 대상업체들 간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을 당국에 건의하는 기구다.

또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을 개설해 정책정보나 시장정보,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 주요 기관과 협력해 탄소배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희 팀장은 “회원사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점도 있고 기업들의 불만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회원사인 할당업체를 비롯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꾸준히 협력해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제라는 좋은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온실가스가 감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친환경 투자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참여해 배출권 거래제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사설

수소경제 선점, 인프라·생태계 지원이 관건

정부가 17일 울산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작년 1800대에서 올해 4000대, 2022년 8만1000대, 2025년 10만 대, 2040년에는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까지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친환경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15GW(수출 7GW) 규모로 확대 보급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행사에 참석,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경제 효과가 2022년 16조 원, 2030년 25조 원으로 커지면서, 고용 유발 인원은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와 버스에 주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개, 2040년까지 1200개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심찬 구상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수소경제의 글로벌 주도권을 기대할 만하다. 우리는 이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 ‘투싼 FCEV’를, 작년에는 주행거리와 연료전지 효율을 높인 ‘넥쏘’를 선보였다. 최근 중추 연료전지시스템 공장도 착공했다. 올해 안 공사를 마무

리해 2030년까지 연간 70만 기의 생산능력을 갖는다. 연료전지 대량생산도 세계 처음이다. 현대차는 또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 4만 대, 2030년 50만 대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수소경제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손꼽히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전망되면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100만 대, 일본 80만 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100만 대, 독일 180만 대 수소차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과의 패권 다툼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협력 체제가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경제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이다. 수소차 내수기반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는 수소 생산·운송·저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과 수소충전소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6000만~7000만 원 수준인 수소차 가격은 생산량이 10만 대 수준으로 늘면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시장 선점이 어렵지 않다. 경쟁국들이 수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충전소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다. 지금 국내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겨우 9곳뿐이다. 수소경제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취약한 인프라와 복잡한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한 킷



미세먼지에 빛을 잃은 태양

달이 아닌 해다. 카메라로 태양을 촬영하려면 태양필터를 사용하거나 렌즈에 셀로판지 등을 부착해 태양이 내뿜는 강렬한 빛을 일정량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한 킷’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다. 미세먼지가 가로막은 대기에 태양은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태양을 막을 정도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재난이다. 후대에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 전 때다.

오승현 기자 story@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The Banker誌 (더뱅크지)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2 0 1 9

우리은행 창립

120 주년

1 8 9 9



고객과 함께 120년 우리의 미래

1899년,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12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한눈에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